

제7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①	④	①	④	⑤
6	7	8	9	10
③	⑤	①	②	④
11	12	13	14	15
②	④	①	④	①
16	17	18	19	20
⑤	⑤	①	④	②
21	22	23	24	25
③	⑤	③	④	②
26	27	28	29	30
②	⑤	③	④	①
31	32	33	34	35
③	①	④	③	⑤
36	37	38	39	40
①	②	⑤	②	③
41	42	43	44	45
②	③	④	③	②
46	47	48	49	50
⑤	②	②	①	③

<1번 오답 해설>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한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이다('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에 해당).

**거푸집: 금속을 녹여 부어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이다(용범). 주로 청동기, 철기 등 금속 도구의 제작에 쓰였다. 거푸집의 제작은 금속기를 대량으로 주조하였음을 뜻하며, 그러한 금속기의 대량 생산은 사회경제적으로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경제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전이 있었음을 뜻한다.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한 것은 신석기 시대이다.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뾰족한 포탄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겉면은 점과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데, 또 식기나 기타 의식[의례]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01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1점]

[체험 프로그램 기획안]

(가)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

▣ 기획 의도
뎨석기를 처음 사용한 (가)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체험 프로그램 예시



[주먹도끼로 고기 자르기]



[마찰식 점화법으로 불 피우기]

▣ 장소: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 마당

- 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 ②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사용하였다.
- ③ 따비와 괭이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
- ④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 ⑤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정답> ①

'(가)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뎨석기를 처음 사용한 (가)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체험 프로그램 예시로 '[주먹도끼로 고기 자르기]', '마찰식 점화법으로 불 피우기'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장소로 '연천 전곡리 유적 체험 마당'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구석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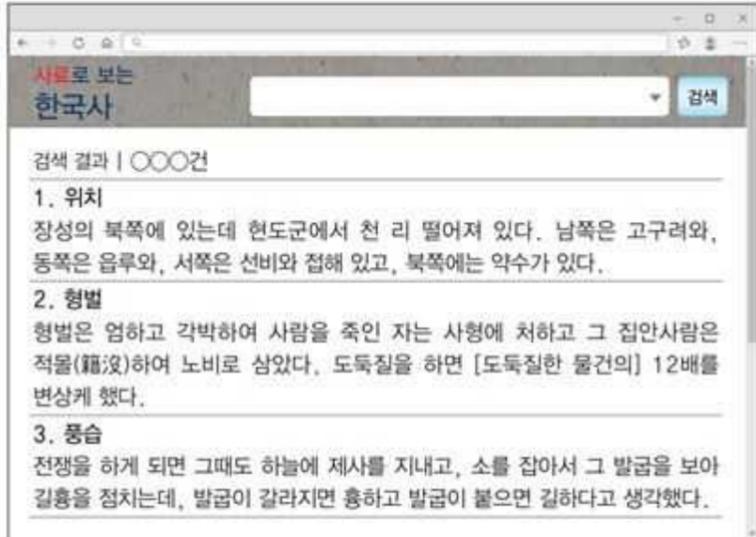
② 청동 방울 등을 의례 도구로 사용한 것은 청동기 시대이다(초기 철기 시대까지 사용). 청동 방울은 제사장 또는 군장이 종교 의례에 사용하였던 무구(巫具)이다.

③ 철제 농기구인 따비와 괭이*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지은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특히 6세기에 이르러 쟁기, 호미, 괭이 등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 우경(牛耕)이 확대되었다.

*따비와 괭이: 손잡이를 잡고 발판을 밟아 삽질을 하듯 손잡이를 뒤로 눌러 떠엎거나 손잡이를 옆으로 비틀어서 땅을 일구는 농기구이다. 쟁기로 갈다 남은 구석진 땅이나 소가 들어서지 못하는 좁은 땅을 가는데 쓰고, 밭을 가는 데도 사용한다. 괭이는 땅을 파거나 고르는 데 쓰이는 농기구이다.

02 - 초기 국가, 부여

2.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다.

정답> ④

'사료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1. 위치로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군에서 천 리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읍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2. 형벌로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은 적몰(籍沒)하여 노비로 삼았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변상케 했다'와 3. 풍습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발굽이 붙으면 길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케 하는 1책12법과 소를 잡아서 그 발굽을 보아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법(牛蹄占法)은 초기 국가, 고구려에도 해당된다는 점이다(1책12법, 우제점법-부여와 고구려의 풍습).

부여는 [대가들인]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또 대가들은 대사자, 사자, 대사 등의 관리를 두었다.

*사출도(四出道): 부여의 지방 관할 구역을 가리킨다. 부여는 수도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방위에 따라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앙에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 있고, 사방에는 그 지방에서 우세한 부족이 다스렸다. 부족장인 제가(諸加)[대가]가 관할하였는데 큰 부족으로는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이 있었다. 처음에 제가는 부족의 대표적인 역할만 했으나 점차 귀족화되며 국가의 지배층이 되었다. 세력의 크기에 따라 수천 가(家) 또는 수백 가의 호(戶)를 지배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소도(蘇塗): 『삼국지』 동이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마다 한 사람을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천군이라고 하였다. 또 나라마다 별읍이 있으니 소도라 하였다. 그곳에서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겼다. 그 안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내지 않았다."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장차 며느리로 삼기 위해 어린 소녀를 데려다 키운 뒤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던 풍속이다. '예부제'라고도 부른다.

③ 읍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이다. 초기 국가, 동예는 지금의 동해안 지역, 즉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남부 지역에 위치하였던 소국 연맹체이다. 옥저와 마찬가지로 읍군과 삼로 등의 군장이 다스렸고, 옥저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책화(責禍):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마다 읍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읍락을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하는 책화(責禍)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만들었던 나라는 고조선이다.

03 - 김해 금관가야의 대외 교류

3.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특별 기획 큐레이터와의 대화

유물을 통해 본 (가)의 대외 교류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유물을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의 활발했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해설 유물

중국과 교류를 보여 주는 금동허리띠	왜와 교류를 보여 주는 바람개비모양 동기	북방과 교류를 보여 주는 청동술

■ 기간: 2024년 ○○월 ○○일~○○월 ○○일
■ 장소: △△ 박물관

- ①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
-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③ 6좌평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하였다.
- ④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다.
- 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정답> ①

'유물을 통해 본 (가)의 대외 교류'라는 제목 아래 '우리 박물관에서는 수로왕이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가)의 유물을 큐레이터가 직접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의 활발했던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해설 유물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 주는 금동허리띠', '왜와(의) 교류를 보여 주는 바람개비모양 동기*', '북방과(의) 교류를 보여 주는 청동술'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김해 금관가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532, 신라 법흥왕 19).

*바람개비모양 동기(銅器): 김해 대성동 2호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방패 꾸미개이다. 가운데 샷갸 모양의 돌출부를 중심으로 네 개의 돌기가 시계 방향으로 뺨어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대성동 유적의 주철을 한 목재 위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방패 꾸미개로 추정하고 있다. 방패 꾸미개의 무늬는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서 사는 열대 조개인 스이지가이 [수자패(水字貝)](6개의 뿔이 달림)를 형상화한 것으로 간주해 왜와 가야의 교류를 보여 주는 유물로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고구려이다. 서옥제는 일명 데릴사위제, 예서제라고도 부른다.

③ 6좌평이 중요한 국사를 논의한 나라는 백제이다. 6좌평 중 내신좌평이 정사암 회의 수장 역할을 겸하면서 '상좌평'으로 불렸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이왕 재위 27년(260)과 재위 27년(261) 사이에 중앙 관제인 6좌평과 16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리의 복색까지 재정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6좌평·16관등제'의 완성 시기를 고이왕 대(재위 234-286, 제8대)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토대 마련만 인정).

**6좌평제의 마련을 고이왕 대로 보지 않고 4~5세기경에 처음 설치되기 시작했거나 무왕 때인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④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화백 회의가 있었던 나라는 신라이다.

⑤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한 나라는 백제이다. 정확하게는 백제 무령왕 대(재위 501-523, 제25대)이다(6세기 초).

04 - 신라의 고승, 원광

4.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왕이 고구려가 자주 국경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에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 이에 (가)에게 명하여 결사표를 짓도록 하였다. (가)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멸하는 것은 출가한 승려로서 적합한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올렸다.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②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④ 사군이충 등을 포함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⑤ 풍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송악명당기를 저술하였다.

정답> ④

'왕이 고구려가 자주 국경을 침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에 군사를 요청해 고구려를 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가)에게 명하여 결사표를 짓도록 하였다. (가)이/가 말하기를, 자기가 살고자 남을 멸하는 것은 출가한 승려로서 적합한 행동은 아니지만, 제가 대왕의 땅에서 살고 대왕의 물과 풀을 먹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올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이다(608, 진평왕 30). 「결사표」는 수[양제](재위 604~618, 제2대)에게 사신을 통해 3년 뒤인 611년에 보내졌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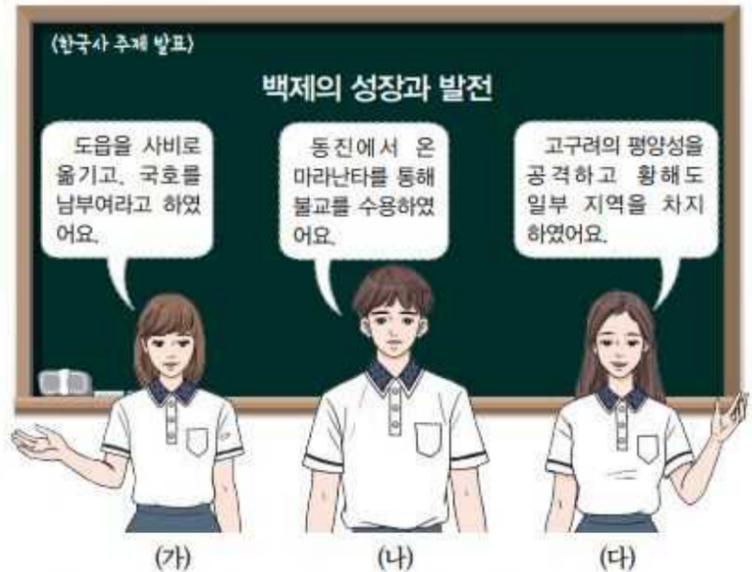
원광은 화랑도의 규범으로 사군이충 등을 포함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601, 진평왕 23).

오답 해설>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②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이다(643, 선덕 여왕 12).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은 신라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이다. 원효는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 ⑤ 풍수지리사상이 반영된 (지리 참위서인) 『송악명당기』를 저술한 인물은 을 지은 인물은 신라 말의 고승, 도선(827~898)이다(9세기 후반 집필 추정). 개성(송악)을 만월형의 길지(吉地)로 풀이하였다. 이외 『도선비기(道洗秘記)』, 『도선답산가(道洗踏山歌)』,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등을 지었다.

05 - 백제의 성장과 발전

5.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정답> ⑤

말풍선 (가)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백제 성왕은 재위 16년인 538년에 수도를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옮겼다(사비 시대 개막). 그리고 이때 국호도 남부여로 고쳤다(백제 멸망 시인 660년까지 사용). 이어 말풍선 (나)에는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동진에서 온 (인도 승려)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한 것은 침류왕 원년인 384년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말풍선 (다)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황해도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어요'라는 말이 나와 있다.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은 371년의 일이다(고구려 고국원왕 41/백제 근초고왕 26)(평양성을 빼앗지는 못함)[참고로 2년 전인 369년에 치양성(지금의 황해도 배천) 싸움 벌임]. 이때 황해도의 일부 지역[대방고지(帶方故地)]*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북부에서 황해도 황주 자비령 이남 지역에 있었던 대방군(313년에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정복되어 고구려의 영토가 됨)을 가리킨다.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나)-(가)'가 된다.

06 - 신라 지증왕

6.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 ②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 ③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 ④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 ⑤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여러 신하들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임금의 호칭을 신라 국왕으로 하자고 건의하니, 왕께서 이를 따르셨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도 들었네, 작년에는 순장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리셨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이 기대되는구먼'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왕'은 신라의 제22대 왕인 지증왕(재위 500-514)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국)왕'의 호칭을 사용한 것은 지증왕 4년인 503년의 일이다. 또 순장 금지는 지증왕 3년인 502년에 이뤄졌다.

(장군이자 정치가인)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정복한 것은 지증왕 13년인 512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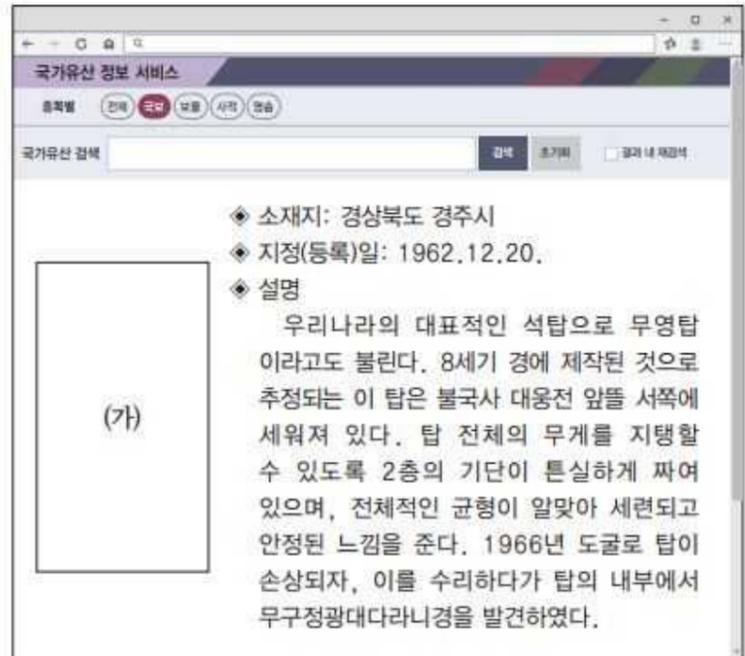
- ① 병부와 상대등을 설치한 '왕'은 신라의 법흥왕(재위 514-540, 제23대)이다(각 517(법흥왕 4)/531(법흥왕 18)).
- ②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맞서) 백제 비유왕(재위 427-455, 제20대)과 동맹을 체결한 신라의 '왕'은 눌지왕(눌지마립간)(재위 417-458, 제19대)이다. 433년에 나제 동맹을 맺었다(신라 눌지왕(눌지마립간) 17/백제 비유왕 7). 참고로 이후 고구려의 위협에 맞서 신라의 소지왕(소지마립간)(재위 479-500, 제21대)과 백제의 동성왕(재위 479-501, 제24대)은 493년에 나제 동맹을 강화한 혼인(결혼) 동맹(이른바 제2차 나제 동맹)을 맺었다(신라 소지왕(소지마립간) 15/백제 동성왕 15).
- ④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한 '왕'은 신라의 문무왕(재위 661-681, 제30대)이다(675.9, 문무왕 15). 당의 이근행(?~?)이 이끄는 20만 대군이 주둔하고 있던 매소성의 보급로를 차단한 후 매소성을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가능케한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설: 『삼국사기』가 참조한 원전인 중국의 사서 『신당서』에는 '매초성 전투'가 675년 2월로 나오며 신라가 패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임진강 유역의 '매소성'이 아니라 임진강 이북의 '매초성', 즉 '수곡성[매차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⑤ 김흠돌(?~681)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숙청한 '왕'은 신문왕(재위 681-692, 제31대)이다(681, 신문왕 원년).

07 -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

7. (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으로 옳은 것은? [2점]



정답> ⑤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주시'이고 설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다.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불국사 대웅전 앞뜰 서쪽에 세워져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탑 전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2층의 기단이 튼실하게 짜여 있으며, 전체적인 균형이 알맞아 세련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1966년 도굴로 탑이 손상되자, 이를 수리하다가 탑의 내부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불국사 삼층 석탑, 즉 석가탑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751, 통일 신라 경덕왕 10). 석가탑 해체 보수 과정에서 금동제 사리외함, 은제 사리합, '은제 사리완', 금동 방형 사리합,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45건 88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석가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갖추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신라의 구례 화엄사 사사자 삼층 석탑이다(8세기 중엽 제작 추정). 이중 기단과 탑신 사이에 연화좌 위에 앉아 있는 네 마리의 사자를 배치하였다. 중앙에 인물상이 있으나 탑신 덮개돌의 아랫면에는 달아 있지 않다. 네 마리의 사자는 암수로 각각 두 마리씩 표현하였으며 모습도 제각각 다르다.

② 백제의 부여 정림사지 오층 석탑이다(7세기). 국보 제9호로,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의 대표적인 탑으로 꼽히고 있다.

③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634, 선덕 여왕 3),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았으며 현재 남아 있는 신라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기단 위 모퉁이에 화강암으로 조각한 사자상이 놓여 있다. 건립 초기에는 9층이었으나 현재는 3층만이 남아 있다.

④ 발해의 영광탑이다. 중국 지린성 창바이조선족자치현 서북쪽 탑산에 위치해 있다. 8~10세기에 건립된 발해 시대의 누각식 전탑(모전 석탑)으로 창바이 영광탑 또는 발해 전탑으로도 불린다. 1908년 장평타이라는 청의 관리가 이 탑에 대해 공사 사당의 영광전(靈光殿)처럼 오랜 세월 속에서도 의연하게 남아 있다고 평한 뒤로 영광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08 - 고구려 명망 이후의 사실

8.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12월에 황제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아들였다. [황제가] 왕은 정사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였기에 용서하여 사평태상백 원외동정으로 삼았다. 천남산은 사재소경으로,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로, 천남생은 우위대장군으로 삼았다. …… 천남건은 검주(黔州)로 유배를 보냈다. 5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 ①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임명되었다.
- ②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③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④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 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였다.

정답> ①

'12월에 황제가 함원전에서 포로를 받아들였다. [황제가] 왕은 정사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였기에 용서하여 사평태상백 원외동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천남산은 사재소경으로, 승려 신성은 은청광록대부로, 천남생은 우위대장군으로 삼았다. …… 천남건은 검주(黔州)로 유배를 보냈다. 5부, 176성, 69만여 호를 나누어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만들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어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국사기』권 제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 '당 고종이 고구려 정복 의례를 행하다(668년 12월)'].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된 것은 668년 9월의 일이다(고구려 멸망)(『삼국사기』 '추구월(秋九月)'로 기록). 주어진 자료 속 천남산(639~701)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이고, 천남생(634~679)은 큰 아들, 천남건(?~?)은 둘째 아들이다(연남산, 연남생, 연남건으로도 부름). 승려 신성(?~?)은 평양성이 당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성문을 열어 평양성이 함락되도록 하였다(남건으로부터 군사 위임 받음).

신라의 문무왕이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한 것은 재위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안승은 666년 신라에 항복한 연개소문(?~665)의 동생 연정토(?~?)의 아들이다.

오답 해설>

②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맞아 대승을 거둔 것은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첩).

③ 신라의 김춘추(603~661)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킨 것은 진덕 여왕 2년인 648년의 일이다(나당 동맹).

④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한 것은 재위 2년인 642년의 일이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⑤ (동부대인 대대로) 연개소문(?~665)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은 642년의 일이다(영류왕의 동생인 보장왕을 내세움).

09 - 당 현종의 발해 공격 요청(신라 성덕왕 대)

9.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개원(開元) 20년에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登州)를 습격하여 자사 위준을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하행성 등에게 군사를 징발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해 토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에 숙위하고 있던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 겨울은 깊어 가고 눈이 많이 내려 신라와 당의 군대가 추위에 고생하므로 회군을 명령하였습니다.

(가)	(나)	(다)	(라)	(마)
발해 건국	무왕 즉위	문왕 상경 천도	선왕 즉위	고려 건국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개원(開元) 20년에 발해가 천자의 조정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登州)를 습격하여 자사 위준을 살해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하행성 등에게 군사를 징발하여 바다를 건너 공격해 토벌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에 숙위하고 있던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 겨울은 깊어 가고 눈이 많이 내려 신라와 당의 군대가 추위에 고생하므로 회군을 명령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삼국사기』권 제8 신라본기 제8 성덕왕 '당나라 현종이 발해 공격을 요청하다(733년 7월)']. 발해 무왕이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 반도)를 공격한 것은 재위 31년인 732년의 일이다. 이에 당 현종(재위 712-62, 제6대)은 이듬해(733) 7월 신라 성덕왕(재위 702-737, 제33대)에게 군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변방을 공격하게 하였다. 참고로 사료에서는 발해를 '말갈'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개원(開元)은 당 현종 대의 연호(713~741)로, 개원 20년은 732년을 가리킨다.

이상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733, 신라 성덕왕 32)를 연표에서 고르면, 무왕이 즉위한 해(719년)와 문왕이 상경(용천부)으로 천도(756, 문왕 20)한 사이인 '(나) 시기'에 해당한다.

10 -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전화(錢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서북의 양조(兩朝)에서는 이를 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홀로 아직 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조한 동전 15,000관(貫)을 재추(宰樞)와 문무 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하사하여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문(錢文)은 해동통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 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었다.
- ②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재배되었다.
-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④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정답> ④

'왕이 제서(制書)*를 내리기를,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으로 전화(錢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서북의 양조(兩朝)에서는 이를 행한 지 이미 오래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홀로 아직 행하지 않고 있다.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주조한 동전 15000관(貫)을 재추(宰樞)와 문무양반 및 군인에게 나누어 하사하여 화폐 사용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한다. 전문(錢文)은 해동통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79 지권제33 식화2 화폐 '화폐의 주조 법식을 정하다(1102년 12월 미상)']. 해동통보가 발행된 것은 숙종 7년인 1102년의 일이다(주전도감 설치는 숙종 2년인 1097). 자료 속 '서북의 양조'는 송(북송)과 요(거란)를 가리킨다.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벽란도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다(벽란도라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정에서 유래).

*제서(制書): 국왕의 명령을 일반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 국왕이 내리는 글에는 그 목적에 따라 책서(策書)·제서(制書)·조서(詔書)·계칙(戒勅) 등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두고 대청 무역에 종사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②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널리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된 것은 신라 지증왕 10년인 509년의 일이다.
- ⑤ 설점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허용된 것은 조선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설점수세제란 수요가 많았던 연(鉛)[납]이나 은(銀) 광산[생산지]에 '점(店)'을 설치하고 (호소에서 채은관을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한 것을 말한다(19세기에 민간이 광맥 탐사 및 개발에서 경영까지 전 과정을 맡는 물주제로 대체).

11 - 과거제 시행

11.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

(나)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한다. …… 제18과는 전지 20결을 지급한다. 이 한(限)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지 17결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통상의 법식으로 한다.

-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②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 ③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 ④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⑤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정답> ②

(가)에 '처음으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官階)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음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78 지 권제32 식화1 전시과 '역분전을 제정하다(940년 미상)'].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940년의 일이다. 개국 공신의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이어 (나)에는 '12월에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제1과는 전지 100결, 시지 70결을 지급한다. …… 제18과는 전지 20결을 지급한다. 이 한(限)에 들지 못한 자에게는 모두 전지 17결을 주기로 하고 이것을 통상의 법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78 지 권제32 식화 1 전시과 '문무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하다(998년 12월 미상)'].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고려 목종 원년인 998년에 시행된 개정 전시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개정 전시과에서는 [이전의 시정 전시과(976, 경종 원년)과 달리]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중국 후주(951-960)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한 것은 고려 광종 9년인 958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의 일이다(전제 개혁법).
- ③ 신돈(?~1371)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인 판사가 되어 전민변정 사업을 추진한 것은 고려 공민왕 15년인 1366년의 일이다.

*전민변정도감: 권세가에게 점탈된 토지나 농민을 되찾아 바로잡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개혁 기관으로, 사실 그 전에도 역대에 걸쳐 여러 번 설치되었다가 혁파되곤 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원종 10년인 1269년, 충렬왕 14년인 1288년, 충렬왕 27년인 1301년, 공민왕 원년인 1352년(권문세족의 반발로 폐지), 공민왕 15년인 1366년, 마지막으로 우왕 7년인 1381년에 각 설치되었다. 전민변정도감을 이처럼 여러 번 설치한 것은 부원파(친원파)를 비롯한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더불어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데 있었다. 하지만 재차 설치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만큼 원 간섭기 이후 권문세족의 권세가 막강하였음을 의미한다.

④ (집권자인 최충헌의 노비인)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만적의 난). 만적의 난은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⑤ 최충헌(1149~1219, 집권 1196-1219)이 (이익민을 축출하고 집권한 직후)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한 것은 고려 명종 26년인 1196년의 일이다.

12 - 궁예의 활동

12.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 북원의 도적 우두머리인 양길은 (가) 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하여 국원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그를 칠 것을 모의하고 비뇌성 아래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양길의 병사는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삼국사기』-

○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로부터 광주(光州) 부근에 이르러 금성군을 쳐서 함락하고 10여 군현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 이에 금성군을 고쳐서 나주라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게 한 뒤 돌아왔다. …… (가) 이/가 변경의 일을 물었는데, 태조가 변방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넓힐 전략을 보고하였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 [태조를] 주목하게 되었다.

-『고려사』-

- ①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 ② 9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하였다.
- ③ 문무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④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④

위의 자료에 '북원의 도적 우두머리인 양길은 (가)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을 미워하여 국원 등 10여 곳의 성주들과 그를 칠 것을 모의하고 비뇌성 아래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양길의 병사는 패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삼국사기』권 제 12 신라본기 제12 효공왕 '양길이 궁예를 공격하였으나 패배하다(899년 7월)'].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태조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로부터 광주(光州) 부근에 이르러 금성군을 쳐서 함락하고 10여 군현을 공격하여 차지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에 금성군을 고쳐서 나주라 하고 군사를 나누어서 지키게 한 뒤 돌아왔다. …… (가)이/가 변경의 일을 물었는데, 태조가 변방을 안정시키고 경계를 넓힐 전략을 보고하였다. 좌우의 신하가 모두 [태조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1 태조 총서 '태조가 나주를 함락시키고 변경을 안정시킬 전략을 보고하다(903년 3월)'].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918)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라 왕실의 후예로 알려진 궁예는 처음에 기훤(?~?)에게 의탁하였다가 다시 양길(?~?)에게 의탁하여 세력을 키웠다.

궁예는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운 후 904년에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마련하였다.

*양길(?~?)은 신라 말 사벌주(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9, 진성 여왕 3)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초적(草賊)(농민 저항군)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다. 양길은 북원(지금의 강원 원주)에서 봉기 세력을 이끌었다. 궁예는 한때 양길의 부하였다가 독립하여 후고구려를 세웠다.

오답 해설>

① 고려 태조 왕건(재위 918-943)은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의 신검(재위 935-936, 제2대)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쳤다(936.9, 태조 19). 일리천은 지금의 경북 구미 지역이다.

②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한 인물은 (통일) 신라의 보조선사 체징(804~880)이다(840, 문성왕 2)[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 가지산문은 도의 선사(도의 국사)(?~825)를 종조(제1조)로 삼았다(전남 장흥군 가지산 보림사에 개산).

③ 문무관료전을 지급한 것은 신문왕 7년인 687년이고, 녹읍을 폐지한 것은 신문왕 9년인 689년의 일이다.

⑤ 「정계(政誡)」(1권)와 「계백료서(誠百寮書)」(8편)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인물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 제1대)이다(936, 태조 19).

13 - 고려의 관학 진흥 정책

13.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하였어.
- ②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하였어.
- ③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어.
- ④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을 재교육하였어.
- ⑤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하였어.

정답> ①

맨왼쪽 말풍선에 '문헌공도 등 사학의 발달로 관학이 위축된 시기에 관학 진흥을 위하여 시행한 정책에 대해 말해 보자'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한 것은 고려 숙종 6년인 1101년의 일이다(관학 진흥책). 서적포는 일종의 출판 관련 기관이다.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개설한 것은 예종 4년인 1109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② 사액 서원에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다.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된 것은 명종 5년인 1550년의 일이다. 풍기 군수 신재 주세붕(1495~1554)이 안향을 제사하기 위하여 세운(1543, 중종 38)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되었다(1550, (사액 서원의 시초). 퇴계 이황(1501~1570)이 1550년 풍기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국왕에게 아뢰어 소수 서원이라는 액서를 하사받게 된 것이다(사액 서원의 시초).

③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한 것은 신라 원성왕 4년인 788년의 일이다(원성왕(재위 785-798), 제38대).

④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조선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⑤ 흥왕사(개경 인근에 위치)에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선종 8년인 1091년부터의 일이다(교장도감 설치는 선종 3년인 1086년)[이후 1101년(숙종 6) 의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 년간 계속].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敎藏)』을 편찬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으로, 불교 경전 주석서인 『교장』이 곧 『속장경』이다. 선종 7년인 1090년에는 그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었다(일명 「의천목록」, 상·중·하 3권으로 편성되어 모두 1,010부(部)에 4,700여 권의 저술이 실림).

14 - 무신 정권기의 사회 모습

14.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서술형 평가	○학년 ○○반 이름: ○○○
◎ 다음 상황들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서술하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방은 평소 자기를 폄박하는 이고를 미워하였는데, 이고가 난을 모의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살해하였다. ○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두경승이 향산동 통로역에서 반란군을 패퇴시켰다. ○ 최우가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다. 	
답안	

- ① 서열이 통칭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청해진을 거점으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 ③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 등이 유포되었다.
- ④ 망이·망소이의 난 등 하층민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 ⑤ 역관들이 시사(詩社)에 참여해 위항 문학 활동을 하였다.

정답> ④

'서술형 평가'라는 제목 아래 '다음 상황들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을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이의방은 평소 자기를 폄박하는 이고를 미워하였는데, 이고가 난을 모의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살해하였다',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두경승이 향산동 통로역에서 반란군을 패퇴시켰다', '최우가 정방(政房)을 자기 집에 설치하고 문사를 선발하여 여기에 소속시켰다'는 내용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무신 이고(?~1171)는 무신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과 함께 무신 정변을 주도한 인물이다(1170, 의종 24). 1171년(명종 원년) 1월 정권을 독차지하고자 이의방을 제거하려 하다가 오히려 이의방에게 피살되었다. 서경유수 조위총(?~1176)이 반란을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한 것은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이다(~1176(명종 6)). 집권자 최우(집권 1219-1249)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 행정을 담당하게 한 것은 고종 12년인 1225년의 일이다. 모두 무신 집권기에 일어난 일들임을 알 수 있다(최우의 것은 최씨 무신 집권기).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무신 정권기)(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공주 명학소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탄방동(炭坊洞)이라는 현재의 지명이 숯방이·숯방이, 즉 숯을 굽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망이와 망소이를 비롯한 명학소민이 숯을 생산하는 하층의 신분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신 집권기에는 이외 하층민의 봉기가 자주 발생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서얼의 (청요직) 통청 운동을 전개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그 결과 철종 2년인 1851년에 신해허통이 이루어져 서얼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가 철폐되었다.
- ②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상왕 장보고(?~846)가 주도하는 국제 무역이 이루어진 것은 9세기 전반의 일이다[청해진 설치 시기, 828(흥덕왕 3)~851(문성왕 13)].
- ③ 왕조 교체를 예언하는 『정감록』이 유포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⑤ 기술직 중인인 역관들이 시사(詩社)에 참여해 위항 문학 활동을 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위항 문학이란 조선 후기 도입인 한성을 중심으로 중인들과 평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문학 양식을 일컫는 말로 '여항 문학'이라고도 한다.

<15번 오답 해설>

- ③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1377, 우왕 3). 실제로 최무선은 화통도감에서 만든 화포로 진포 대첩[해전]에서 왜구를 물리쳤다(1380.8, 고려 우왕 6).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설도 있음).
- ④ 고려 우왕 13년인 1387년 12월에 명 태조 주원장(재위 1368-1398)이 우왕에게 국서를 보내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 이에 우왕과 최영이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이후 위화도 회군 발생).
- ⑤ [윤관(1040~1111)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위해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한 것은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윤관은 예종 2년인 1107년에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으며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15 -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대몽 항쟁)

15.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2점]

○ 박서는 김중온의 군사로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의 군사로는 성의 남쪽을, 별초 250여 인은 나누어 3면을 지키게 하였다. (가)의 군사들이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자 성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나가 싸워 그들을 패주시켰다.

○ 송문주는 귀주에서 종군하였던 사람인데 그 공으로 낭장(郎將)으로 초수(超授)되었다. 이후 죽주 방호별감이 되었을 때, (가)이/가 죽주성에 이르러 보름 동안이나 다방면으로 공격하였으나 성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갔다.

- 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 ②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 ③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 ④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 ⑤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정답> ①

위의 자료에 '박서는 김중온의 군사로 성의 동서쪽을, 김경손의 군사로는 성의 남쪽을, 별초 250여 인은 나누어 3면을 지키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의 군사들이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자 성안의 군사들이 갑자기 나가 싸워 그들을 패주시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103 열전 권제16 박서 '박서가 귀주에서 몽골군을 물리치다']. '박서(서북면 병마사)', '김중온(삭주분도장군)'과 '김경손(정주분도장군)'이라는 인물과 주어진 사료의 내용으로 볼 때 몽골의 제1차 침입 시(1231~1232)에 있었던 사실임을 알 수 있다(1231, 고려 고종 18)(귀주성 전투)[1231(고종 18) 음력 9월~이듬해 정월]. 참고로 귀주성을 '구주성'이라고도 한다. 아래의 자료에는 '송문주는 귀주에서 종군하였던 사람인데 그 공으로 낭장(郎將)으로 초수(超授)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후 죽주 방호별감이 되었을 때, (가)이/가 죽주성에 이르러 보름 동안이나 다방면으로 공격하였으나 성을 빼앗지 못하고 물러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103 열전 권제16 박서 '송문주']. (죽주방호별감)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한 것은 고종 23년인 1236년의 일이다(죽주 전투, 죽주성 전투)[몽골의 제3차 침입 시(1235~1239)]. 죽주(산)성은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몽골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 집권자 최우(집권 1219-1249)의 주도로 강화도 천도가 단행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1232.6).

오답 해설>

②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것은 정종 대(재위 945-949, 제3대)의 일이다(947, 정종 2).

16 - 고려의 국가유산

16. (가) 국가의 국가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신문

제△△호2024년 ○○월 ○○일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강진군에서 열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한 국보 순회전이 전남 강진군에서 '도자기에 핀 꽃, 상감 청자'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청자 상감 물가풍경무늬 매병 등 (가)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상감 청자가 공개된다. 특히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왕실 자기의 전형을 보여 주는 유물로 모란을 정교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회 관계자는 "상감 청자의 생산지였던 강진군에서 개최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정답> ⑤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 강진군에서 열려'라는 제목 아래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한 국보 순회전이 전남 강진군에서 도자기에 핀 꽃, 상감 청자를 주제로 개최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번 전시에서는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 청자 상감 물가풍경무늬 매병 등 (가)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상감 청자가 공개된다. 특히 국보 청자 상감 모란무늬 항아리는 왕실 자기의 전형을 보여 주는 유물로 모란을 정교하고 화려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회 관계자는 상감 청자의 생산지였던 강진군에서 개최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는 내용이 나와 있다. 상감 청자는 고려 시대인 12세기 중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고려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이다.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 궁재 김득신(1754~1822)의 풍속화 '파적도'(야묘도추)·[궁재풍속화첩]([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이다. 절묘한 구도와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 화면 전체에 해학적 분위기가 흐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논산 관촉사 석조[은진] 미륵보살 입상이다.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고려 광종 대),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담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 '은진 미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② 고려의 나전 칠기에 속하는 '나전 국화 넝쿨무늬 합'이다(12세기 작). '나전 국화 넝쿨무늬 자합' 또는 '나전 대모 칠 국화 넝쿨무늬 합'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서 '합(盒)'은 그릇의 일종으로, 운두(그릇 둘레의 높이)가 높지 않고 등글넓적하며 뚜껑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③ 고려 시대인 14세기경 그려진 고려 불화인 수월관음도이다. 불교 경전 『화엄경』에 나오는 관음보살의 거처와 형상을 그렸다(수월관음보살도라고도 한다). 관음보살이 바위에 비스듬히 걸터앉은 모습으로, 풍만한 얼굴과 부드러운 의습(인물의 의상에 나타내는, 파도 모양의 늘어진 형상이나 주름) 처리가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호화로운 인상을 준다. 주위의 절벽과 대나무, 선재 동자*, 정병 등은 당시 수월관음도에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 소재들이다.

*선재 동자: 『화엄경』 중 「입법계품(入法界品)」에 나오는 불교 신앙의 모범적인 구도자이다. 일체의 진상을 알고자 하여 천하를 돌아다니며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만나다 마지막으로 십대원(十大願)을 들은 뒤 입법계(入法界)의 큰 뜻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④ 개성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다(1348, 충목왕 4). 경천사지 십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의 대리석 탑으로, 조선 초기의 (서울) 원각사지 십층 석탑에 영향을 주었다(1467, 세조 13).

17 - 익재[역옹] 이제현

17.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최근에 역옹패설을 저술하셨는데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고위 관리 유청신이 원의 사신과 몽골말로 직접 대화하자 홍자변이 역관을 심하게 꾸짖었고, 이에 유청신이 부끄러워 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 ②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 ③ 청방인문표를 지어 인질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 ④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 ⑤ 만권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정답> ⑤

왼쪽 말풍선에 '최근에 역옹패설을 저술하셨는데 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고위 관리 유청신이 원의 사신과 몽골말로 직접 대화하자 홍자변이 역관을 심하게 꾸짖었고, 이에 유청신이 부끄러워 한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은 익재[역옹] 이제현(1287~136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역옹패설』은 일종의 수필 집이자 시 비평서이다(1342, 충혜왕 복위 3).

(일종의 독서당인) 만권당은 (상왕이 된 충선왕에 의해) 원의 연경[지금의 북경]에 고려 충숙왕 원년인 1314년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현(1287~1367)을 비롯한 고려의 여러 학자들을 만권당으로 불렀는데 이때 원의 문인들[조맹부(1254~1322), 원명선(1269~1322), 우집(1272~1348), 요수(1238~1313) 등]과 교류[교유]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불씨잡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한 인물은 조선의 개국 공신 삼봉 정도전(1342~1398)이다(1394, 태조 3).
- ②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선 인물은 (불일)보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을 지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1190 고려 명종 20).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 ③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請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강수(?~692)이다.

*「청방인문표」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629~694)의 석방을 청하는 글이고, 「답설인귀서」는 671년(문무왕 11)에 지은 당의 행군총관 설인귀(614~683)의 서신에 대한 답서이다. 당에 속위 중이던 김인문이 옥에 갇힌 것은 고구려를 멸한 후 신라가 당군에 대항하여 군사를 발하자 당 고종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671년경으로 추정). 이후 당 고종은 「청방인문표」를 읽고 인문을 석방하였다(672년경으로 추정(신라가 9월에 사죄사 파견). 단지 표문뿐 아니라 두 차례의 침략이 실패하고, 신라가 천왕사를 짓고 당 황제의 만년 수명을 축원하는 법석을 연다는 보고, 김인문을 문무왕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 등도 김인문의 석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삼국유사』).

④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은 인물은 백운거사 이규보(1168~1241)이다(1193, 고려 명종 23).

18 - 경북 안동의 역사적 사실

18. (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도시 (가)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 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을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흥건적의 침입 당시 공민왕과 노국 공주가 피란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문 장소

- 하회마을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관람하기
- 봉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 둘러보기
-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의 학문과 일생 생각해 보기

- ①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하였다.
- ②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 ③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 ④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켰다.
- 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정답> ①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품은 도시 (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는 제목 아래 '(가)은.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등을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흥건적의 침입 당시 공민왕과 노국 공주가 피란했던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추천 방문 장소로 '하회 마을에서 하회 별신굿 탈놀이 관람하기', '봉정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극락전 둘러보기', '도산 서원에서 퇴계 이황의 학문과 일생 생각해 보기'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지역'은 경북 안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고려 태조 왕건(877~943)이 고창(지금의 경북 안동) 전투에서 후백제의 견훤(867~936)에게 승리한 것은 930년 1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② 묘청(?~1135)이 서경(지금의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한 것은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의 일이다(묘청의 난).
- ③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승려 백운화상[경한](1299~1374)의 제자들이 『직지심체요절』을 간행한 것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의 일이다.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즉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다. 현재 하권만 프랑스에 남아 있다.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④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의 무신들이 보현원에서 정변을 일으킨 것은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 8월의 일이다(무신 정변). 보현원은 경기도 장단에 위치한 원(院), 즉 일종의 관원 숙소로 의종이 못을 만들고 놀이하는 향연 장소로 만들어 자주 거둥하였다.

⑤ 이성계(1335~1408)를 중심으로 한 고려군이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한 것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9월의 일이다(황산 대첩). 황산 대첩은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산은 지금의 전라도 지리산 근방이다. 현재 전북 남원시 운봉읍에 황산 대첩 비지(碑址)가 사적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다.

19 - 조선 태조 대의 사실

19. 밑줄 그은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임금이 무악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였다.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형에게 말하였다. "고려 말에 서운관에서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글을 올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다. 근래에는 계룡이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기에 백성을 공사에 동원하여 힘들게 하였다. 이제 또 여기가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여 와서 보니, 유한우 등이 도리어 무악보다는 송도가 더 명당이라고 고집한다. 그대들은 도읍할 만한 곳을 서운관 관리에게 다시 보고받도록 하라."

- ① 독창적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
- ②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이 창설되었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 ④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⑤ 성삼문 등이 상왕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정답> ④

'임금이 무악에 이르러서 도읍을 정할 땅을 물색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좌시중 조준, 우시중 김사형에게 말하였다. 고려 말에 서운관에서 송도의 지덕이 이미 쇠했다는 이유로 여러 번 글을 올려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자고 하였다. 근래에는 계룡이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기에 백성을 공사에 동원하여 힘들게 하였다. 이제 또 여기가 도읍할 만한 곳이라 하여 와서 보니, 유한우 등이 도리어 무악보다는 송도가 더 명당이라고 고집한다. 그대들은 도읍할 만한 곳을 서운관 관리에게 다시 보고받도록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태조실록』6권 태조 3년(1394) 8월 11일 '왕이 무악을 둘러보고 유숙하다. 천도할 장소에 대한 분분한 의론']. 주어진 자료는 한양을 새로운 도읍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따라서 밑줄 그은 '임금'은 조선의 태조(재위 1392-1398, 제1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394년 10월 한양 천도). 참고로 자료 속 '무악(山)'은 지금의 서울 신촌 일대를, '계룡(山)'은 충남 계룡시 북부, '송도'는 개성을 가리킨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한 것은 두 차례이다. 태조 7년인 1398년 8월에 일어난 것이 첫 번째이고(제1차 왕자의 난, 방원의 난, 무인정사의 난, 또는 정도전의 난이라고 함), 정종 2년인 1400년 1월에 일어난 것이 두 번째이다(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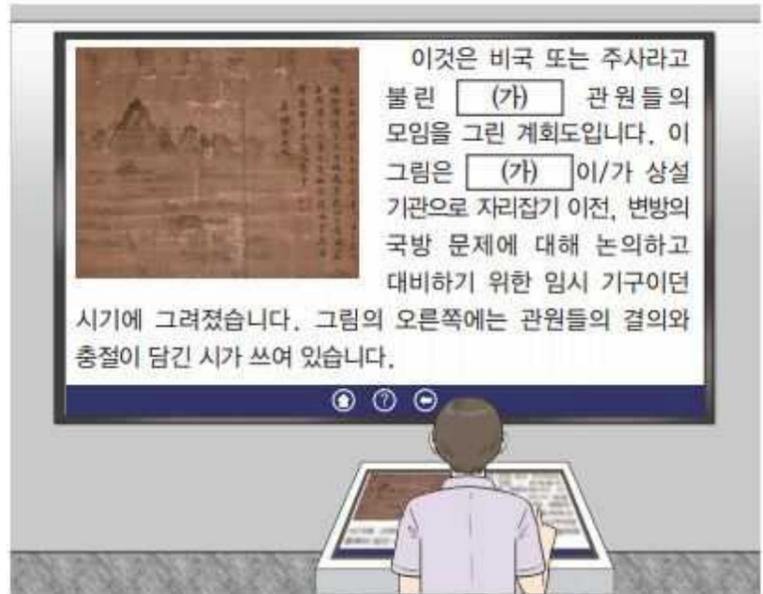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독자적 문자인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은 세종 28년인 1446년의 일이다(훈민정음이 창제된 것은 세종 25년인 1443년).
- ② 수도 방어를 위하여 금위영이 창설된 것은 숙종 8년인 1682년의 일이다. 이로써 조선 후기의 군사 제도인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 ③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 ⑤ 성삼문(1418~1456) 등이 상왕인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처형된 것은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단종 복위 운동, 사육신).

20 - 비변사

20.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 ②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
- ③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등을 다루었다.
- ④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 ⑤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의 관직을 두었다.

정답> ②

'이것은 비국 또는 주사라고 불린 (가) 관원들의 모임을 그린 계획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그림은 (가)이/가 상설 기관으로 자리잡기 이전, 변방의 국방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이던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관원들의 결의와 총절이 담긴 시가 쓰여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비변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임시 기구로 설치]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 이후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문무 합의 기구). 비국(備局), 묘당(廟堂), 주사(籌司)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초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오답 해설>

- 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본 기구는 한성부이다.
- ③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를 범한 중죄인을 다루는 기구는 의금부이다. 조옥(詔獄), 금오(金吾), 왕부(王府)로도 불렸다.
- ④ 5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한 기구는 사헌부이다. 사헌부는 사간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3사)로 불렸다.
- ⑤ (정3품의) 도승지를 수장으로 좌승지, 우승지 등의 관직을 둔 기구는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관장]한 승정원이다. 은대(銀臺) 외에도 후원(喉院), 정원(政院), 대언사(代言司) 등으로 불렸다(소속 관원을 은대 학사로 칭함).

21 - 을사사화

21.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곳은 이연적의 위패를 모신 경주 옥산서원입니다. 이연적은 이른바 대운과 소운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윤임 등 대운 세력이 탄압받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들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습니다.



- 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었다.
- ②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되었다.
- ③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
- ④ 진성 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⑤ 조광조 등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정답> ③

'이곳은 이연적의 위패를 모신 경주 옥산 서원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연적은 이른바 대운과 소운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윤임 등 대운 세력이 탄압받은 이 사건 당시 관련자들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사건'은 조선 명종 즉위년인 1545년에 일어난 을사사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을사사화는 왕실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다(대운인 윤임 일파가 축출). 그리고 2년 뒤에 회재 이연적(1491~1553) 등이 화를 입는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1547, 명종 2). 양재역 벽서 사건은 당시 외척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던 윤원형(소운) 세력이 경기도 과천의 양재역에 붙여진 벽서를 빌미로 을사사화(1545) 이후 잔존한 반대파 인물들(대운 세력과 사림계)을 재차 숙청한 사건이다. '정미사화'라고도 하는데 후일 소운 일파 몰락 후 벽서 사건 자체가 무고임이 공인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점필재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된 사건은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이다.
- ② 폐비 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된 사건은 연산군 10년인 1504년에 일어난 갑자사화이다.
- ④ 진성 대군(1488~1544)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건은 중종반정이다. (이조참판을 지낸) 성희안(1461~1513)과 (중추부지사) 박원종(1467~1510) 일파가 연산군 12년인 1506년 9월 연산군을 몰아내는 중종반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반정 세력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진성 대군을 왕[중종(재위 1506-1544, 제11대)]으로 추대하였다.
- ⑤ 정암 조광조(1482~1519) 등이 반정 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은 중종 14년인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이다.

22 - 병자호란

22.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임금이 여러 도(道)에 명을 내렸다. "나라의 운세가 매우 좋지 않아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러 장수들이 좌시하여 수도가 함락되고 말았다. …… 예로부터 반역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이처럼 극도로 흉악한 역적은 없었다. 종사와 자전*을 염려하여 남쪽으로 피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의 관소에 와서 용골대의 뜻을 전하기를,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어찌 스스로 먹고살 길을 마련하지 않는가. 세자와 인질들에게 어찌 먹고살 식량을 늘 지급해 줄 수가 있겠는가. 정착할 땅을 주어 내년부터 각자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

- ①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
- ②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③ 영창 대군이 사사되고 인목 대비가 유폐되었다.
- ④ 이덕형이 구원병 요청을 위해 명에 청원사로 파견되었다.
- ⑤ 김상헌 등이 남한산성에서 화의에 반대하여 항전을 주장하였다.

정답> ⑤

(가)에 '임금이 여러 도(道)에 명을 내렸다. 나라의 운세가 매우 좋지 않아 역적 이괄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여러 장수들이 좌시하여 수도가 함락되고 말았다. …… 예로부터 반역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이처럼 극도로 흉악한 역적은 없었다. 종사와 자전*을 염려하여 남쪽으로 피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인조실록』4권 인조 2년(1624) 2월 11일 '여러 도에 역적과 맞서 싸우라고 하유하다']. 이괄(1587~1624)의 난이 일어나 인조가 충남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란한 것은 재위 2년인 1624년의 일이다. (나)에는 '정명수가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의 관소에 와서 용골대의 뜻을 전하기를, 세자가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미 5년이 되었으니, 어찌 스스로 먹고살 길을 마련하지 않는가. 세자와 인질들에게 어찌 먹고살 식량을 늘 지급해 줄 수가 있겠는가. 정착할 땅을 주어 내년부터 각자 농사를 지어 먹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인조실록』42권 인조 19년(1641) 12월 22일 '용골대가 세자에게 농사지어 먹을 것과 정예한 호위 병사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한 사실을 배종 재신이 치계하다']. 병자호란 이후 청에 인질로 끌려간 소현 세자(1612~1645)와 관련된 내용이다. 참고로 정명수(?~1623)는 조선의 사정을 밀고하여 청 황제의 신임을 얻은 매국노로 당시 용골대, 마부대 등 청 장수의 역관으로 있으면서 동포를 괴롭히고 매국 행위를 일삼은 인물이다.

청음 김상헌(1570~1652) 등이 남한산성에서 화의에 반대하여 항전을 주장한 것은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1636.12~1637.1)(척화론, 척화주전론).

*자전(慈殿): 임금의 어머니

오답 해설>

① 정문부(1565-1624)가 함경도 길주에서 의병을 이끈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2(선조 25), 이때의 승전이 '북관대첩**비'에 새겨짐].

**북관대첩(北關大捷): 선조 25년인 1592년 9월부터 선조 26년인 1593년 2월까지 정문부가 이끄는 조선군에 의해 수행된 함경도 북부인 북관 지역 수복 전투를 가리킨다.

②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조선 후기 5군영 체제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③ 선조의 13번째 왕자이자 인목 대비의 소생인 영창 대군(1606~1614)이 사사(賜死)***된 것은 광해군 6년인 1614년의 일이고, 인목 대비(1584~1632)가 (서궁에) 유폐된 것은 광해군 5년인 1613년의 일이다. 대북파가 영창 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계축옥사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1613, 광해군 5). 그런데 영창 대군은 사사된 것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 이견이 있으나)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강화부사 정항이 굶겨 죽였거나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증살(蒸殺)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사(賜死): 죽일 죄인을 대우하여 임금의 독약을 내려 스스로 죽게 하는 것

④ 한음 이덕형(1561~1613)이 구원병 요청을 위해 명에 청원사(請援使)로 파견된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일이다[1592(선조 25) 6월 18일]. 이덕형은 명에 가서 임진왜란이 조선과 일본의 공모에 의한 전쟁으로 오해하던 명 조정의 오해를 풀고 참전에 소극적이던 병부상서 석성(1538~1599)을 설득하여 파병을 이끌어냈다. 귀국 후 파병된 명의 장수 이여송(1549~1598)의 접반관, 병조판서 등으로 활약하였다(훈련도감 당상에도 임명됨).

<23번 오답 해설>

② 오가작통제는 다섯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은 제도로 촌락 주민에 대한 통제[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향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세종 10년인 1428년 이후 단종 연간에 처음 실시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대에 더욱 정비되어 법제화되었다(1485, 성종 16). 그리고 마침내 속종 원년인 1675년에 윤휴(1617~1680)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에서 '오가작통사목'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④ 균역법 시행 후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1750, 영조 26). 그 외에도 정부는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매년 1필의 면포(군포)나 2냥]를 부과하고, 해세·어장세·선박세 등을 징수하기도 하였다.

⑤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과세]한 것은 공법[연분9등법] 시행 시이다(1444, 세종 26).

23 - 신해통공

23.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좌의정 채제공이 왕에게 아뢰었다. "빈둥거리는 무뢰배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상점을 개설하고 일용품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까지 싼값에 억지로 사들이기 일쑤입니다. 혹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亂廛)으로 몰아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로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물건 주인은 본전에서 밀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고 갑니다. 그리고 무뢰배들은 제각기 가게를 벌여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사람은 그 가게 외에서는 물건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 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 ① 계해약조의 체결 과정을 확인한다.
- ② 오가작통법의 실시 목적을 파악한다.
- ③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조사한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한 이유를 살펴본다.
- ⑤ 풍흉에 따라 전세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정답> ③

'좌의정 채제공이 왕에게 아뢰었다. 빈둥거리는 무뢰배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상점을 개설하고 일용품을 거래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큰 물건에서 작은 물건까지 싼값에 억지로 사들이기 일쑤입니다. 혹 물건 주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난전(亂廛)으로 몰아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로 끌고 가 혹독한 형벌을 당하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물건 주인은 본전에서 밀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고 갑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리고 무뢰배들은 제각기 가게를 벌여놓고 배나 되는 값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사람은 그 가게 외에서는 물건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건 값이 날마다 치솟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1791) 1월 25일자 '저자의 백성들에게 육전 이외에서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변암[변용] 채제공(1720~1799)은 조선 후기 남인[청남]의 영수로, 정조를 보좌하여 이른바 '정조 시대'를 연 대표적인 문신[재상]이다. 정조의 탕평책과 신해통공을 추진한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은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견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조선과 대마도주가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세견선 50척, 세사미두 200석 등). 이후 일본의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도 세견선 숫자에 대한 정약이 이루어졌다.

24 - 조선 숙종 대의 사실

24.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제우가 흑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 ② 변급, 신류 등이 나선 정벌에 참여하였다.
- ③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 ④ 경신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이 발생하였다.
-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이것은 조선과 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고자 세운 비석의 탁본입니다. 비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비석은 국경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청에서 파견한 오라총관 목극동과 이 왕이 보낸 조선의 관리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어 청과의 국경을 확정한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왕'은 조선의 제19대 국왕인 숙종(재위 1674~1720)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숙종 대에는 경신환국(1680, 숙종 6), 기사환국(1689, 숙종 15), 갑술환국(1694, 숙종 20) 등 세 차례의 환국이 발생하였다.

오답 해설>

- ① 동학을 창시(1860.4)한 수운 최제우(1824~1864)가 흑세무민의 죄로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은 후 대구장대(大邱將臺)에서 처형된 것은 고종 원년인 1864년 4월의 일이다.
- ② 효종 대에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나선 인물은 무신 변급(?~?)과 무신 신류(1619~1680) 두 사람이다[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솔)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솔) 두 차례 나선 정벌 단행].
- ③ (왕권 강화를 위해)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창설된 것은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⑤ 정여립(1546~1589)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25 - 추사 김정희

25. 밑줄 그은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하였다.
- ②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③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 ④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 ⑤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정답> ②

'이것은 이 인물이 제주도 유배지에서 부인에게 보낸 한글 편지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편지에는 유배 생활의 곤궁함과 함께 위독한 부인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독창적인 서체로 유명한 이 인물은 유배지에서 세한도를 그리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김정희는 헌종 6년(1840)부터 헌종 14년(1848)까지 9년간 제주도 대정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유배가기 전이나 유배간 뒤나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의리로 대하는 이상적(1804~1865)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세한도를 그려 주었다(1844, 헌종 10)(추사체도 이 시기 창안).

김정희는 금석학을 연구하여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1852, 철종 3)(『금석과안록』).

오답 해설>

- ① 고봉 기대승(1527~1572)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인) 사단칠정 논쟁을 전개한 인물은 퇴계 이황(1501~1570)이다(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 편지로 논변). 사단칠정 논쟁을 줄여, '사칠 논쟁', '사칠 논변'이라고도 한다.
- ③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한 인물은 하곡 정제두(1649~1736)이다.
- ④ 청으로부터 시헌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1580~1658)이다(1653, 효종 4).
- ⑤ 『열하일기』*에서 수레와 선박의 사용을 강조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 박지원은 연행사(燕行使)를 수행한 후 귀국하여 『열하일기』를 저술하였다(1780년 10월 말 귀국 후 3년에 걸쳐 완성).

*『열하일기』: 정조 4년인 1780년에 청 건륭제(재위 1735~1796, 제6대)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1725~1790)을 수행하여 청 황제의 피서지인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일들을 소상하게 담은 사행일기이다(일종의 여행기인 '연행일기').

26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6.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담배 농사를 짓는 농민
- ② 엽포 왜관에서 교역하는 상인
- ③ 세책가에서 춘향전을 빌리는 부녀자
- ④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 ⑤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는 광대

정답> ②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 문서를 거두어 불태우라고 명하셨다는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나도 들었네. 선왕께서 노비추쇄관을 혁파하셨는데, 그 뜻을 이어받으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말이 나와 있다. 각 궁방과 중앙 관서의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종량)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의 일이다(총 6만 6,067명)(1801.1.28). 또 노비 추쇄를 금지하기 위해 노비추쇄관을 혁파한 것은 정조 2년인 1778년의 일이다. 이어 노비추쇄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조선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1785.9)(이 해에 편찬된 『대전통편』에 반영). 따라서 주어진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9세기 초로 조선 후기라 할 수 있다.

엽포(지금의 울산)에 왜관이 열린 것은 조선 전기인 세종 대의 일이다(3포 개항, 1426년(세종 8), 부산포가 이때 열리고 엽포와 제포(창원, 내이포)는 10년 뒤인 1436년(세종 18)에 추가로 개항). 그런데 중종 5년(1510)에 일어난 '3포 왜란'으로 3포가 폐쇄되었고 2년 뒤인 임신약조(1512) 때 제포만 개항(이후 부산포로 이동)하고 엽포의 왜관은 폐쇄되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① 담배는 조선 후기에 널리 재배된 상품 작물이다.
- ③ 소설책을 빌려주는 세책가(貰冊家)*가 성행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세책가(貰冊家): 영리를 목적으로 책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요컨대 조선 후기에 국문 소설이 유행하자 이에 편승하여 주로 필사본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원하는 고객들(주로 부녀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했던 일종의 '소설 유통업자'들을 일컫는다.
- ④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17세기 대동법 시행 이후).
- ⑤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공연**이 벌어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산대놀이는 조선 후기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경기도에서 공연된 가면극으로, 송파 산대놀이는 현재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1973년). 또 송파장은 서울 송파, 정확히게는 지금의 서울 송파동이 아니고 한강변 언덕 위에 있던 구(舊)송파진(송파나루)으로, 석촌 호수 부근에 개설되었다. 처음에는 5일장이었으나 점차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설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27 -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사실

27.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이 우표 속 그림은 국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하례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왕실 행사의 화려함과는 달리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 왕에 걸쳐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이 시기에는 국왕의 실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복벌이 추진되었다.
- ② 윤지충 등이 처형된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 ③ 이필제가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다.
- ④ 경복궁 중건 비용 마련을 위해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 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정답> ⑤

'이 우표 속 그림은 국왕의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거행된 진하례 모습을 그린 궁중 행사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림에 보이는 왕실 행사의 화려함과는 달리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이 세 왕에 걸쳐 60여 년 동안 권력을 잡은 이 시기에는 국왕의 실권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세기 전반의 세도 정치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5년인 1862년의 일이다(1862.5). 당시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고, 안핵사**로 파견된 환재 박규수(1807~1877)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세도 정치기: 정조 사후, 순조-헌종-철종에 이르는 60년 간 소수 가문(안동 김씨를 중심으로 한 풍양 조씨, 대구 서씨, 연안 이씨, 풍산 홍씨, 반남 박씨 등 6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를 말한다.

**안핵사(按察使): 조선 후기 지방에서 민란이나 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의 처리(수습)를 위해 파견된 임시 직책이다. 목사, 군수 등 인근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중앙의 관리인 경관(京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안핵사는 사건의 원인과 진행 등의 전말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또, 사건의 처리 방안을 건의하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려 하였다. 사실 안핵사가 파견된다 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으므로 관리들은 임명을 꺼려하였다. 또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안핵사가 파견되었던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복벌을 추진한 것은 효종 3년인 1652년의 일이다. 복벌의 대상은 청(나라)이었다. 참고로 어영청이 처음 설치된 것은 인조 원년인 1623년이다(처음에는 총융청에 소속되었다가 1628년에 새로 설치).
- ② 전라도 진산(珍山)의 두 선비 권상연(1750~1791), 윤지충(1759~1791)이 부모의 제사를 거부하고 위패를 불태워 발생한 신해박해가 일어난 것은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진산 사건'이라고도 함). 참고로 윤지충은 정약용의 외사촌이자 권상연의 외종제이다.

③ 동학교도 이필제(1824~1871)가 제2대 교주 최시형(1827~1898)과 협의하여 영해(지금의 경북 영덕)에서 난을 일으킨 것은 고종 8년인 1871년 3월의 일이다(~1871.8).

④ 경북궁 중건(1865~1868) 비용 마련을 위해 당백전이 발행된 것은 고종 3년인 1866년 11월의 일이다.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여 이듬해인 1867년 4월까지만 유통되었다(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의 약 20배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화).

<28번 오답 해설>

④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하다 거부되자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격노한 평양 관민이 불태워 격침시켰다. 이른바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고종 3년인 1866년 7월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 마침 환재 박규수(1807~1876)가 평안도 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신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1871.5, 고종 8).

⑤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의 일이다(황사영 백서 사건). 해당 연도에 일어난 천주교 박해 사건이 바로 신유박해이다(1801.1). 상술하면, 천주교인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후 갖고 있다 순조 원년인 1801년 9월 체포되었다. 1801년 1월부터 시작된 신유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다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8 - 신미양요 이후의 사실

28. (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였다.
- ②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 ③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 ④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유역에서 통상을 요구하였다.
-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3년 전 우리나라에서 전시한 어재연 장군의 수자기를 찍은 사진이야. 어재연 장군은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가) 당시 광성보에서 항전하였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맞아. 이 수자기는 그때 빼앗겼다가 많은 노력 끝에 대여 형식으로 들어와 실물을 볼 수 있었지.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해'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사건'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생한 신미양요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신미양요 당시 어재연 장군(진무중군)의 부대는 강화도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싸웠다(1871.5, 신미양요). 어재연 장군(1823~1871)이 강화도로 급파되면서 데리고 간 부대는 훈련도감에서 2초(1초는 125명), 금위영과 어영청, 총융청 등에서 각군 1초씩을 뽑은 총 1,000여 명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성보 소속의 3개 돈대에 조정 배치되었다(각종 대포 143문도 동원, 어재연 장군 동생인 어재순(1826~1871)도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

신미양요 직후 서울[한성]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교통 요충지 200여 곳).

오답 해설>

- ① 『의궤』를 비롯한 외규장각 도서(각종 귀중품 포함)가 약탈당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1866.10~11].
- ② 홍경래 등이 난을 일으켜 정주성을 점령한 것은 순조 11년인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의 난 때의 일이다[1811.12~1812.4(음력)].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주된 원인은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다.

29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29. (가), (나) 조약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조선 이법(里法)으로 동서남북 직경 10리로 정한다. 동래부는 이정 밖에 있지만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

(나) 통상 지역에서 조선 이법 100리 이내, 혹은 장래 양국 관원이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 경계 안에서 영국 인민은 여행증명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여행증명서를 지닌 영국 인민은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하거나, 각종 화물을 들여와 팔거나(단, 조선 정부가 불허한 서적·인쇄물 등은 제외), 일체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영국 군인
- ②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하는 독일 상인
- ③ 부산 절영도의 조차를 요구하는 러시아 공사
- ④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는 청 관리
- ⑤ 텐진 조약에 따라 조선에서 철수하는 일본 군인

정답> ④

(가)에 '부산항에서 일본국 인민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 이정(里程)은 부두로부터 기산하여 조선 이법(里法)으로 동서남북 직경 10리로 정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동래부는 이정 밖에 있지만 특별히 왕래할 수 있다. 일본국 인민은 마음대로 통행하며 조선 토산물과 일본국 물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 13년인 1876년 8월 조인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 규정된 내용이다(제4관[제4조]의 이른바, '간행이정 10리 규정'이다. 이정(里程)이란 어떤 곳으로부터 다른 곳까지 이르는 거리의 이수(里數)로, 간행이정이란 개항장에서의 (상업적) 활동 범위를 뜻한다. (나)에는 '통상 지역에서 조선 이법 100리 이내, 혹은 장래 양국 관원이 서로 의논하여 정하는 경계 안에서 영국 인민은 여행 증명서 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행 증명서를 지닌 영국 인민은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며 통상하거나, 각종 화물을 들여와 팔거나(단, 조선 정부가 불허한 서적·인쇄물 등은 제외), 일체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종 20년인 1883년 11월에 체결된 조영 수호 통상 조약에 규정된 내용이다(제4관 6항). 조미 수호 통상 조약과 달리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임오군란 직후인 1882년 8월 조선과 청 사이에 체결되었다(불평등 조약). 특히 제4조는 유명한 조항으로, 이를 통해 조선은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5.4)(거문도 사건).
 - ② 독일 상인[독일계 유대 상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1788~1836)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 ③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명목으로) 절영도(지금의 부산 영도)를 조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고종 34년이자 광무 원년인 1897년 7월의 일이다. 이듬해 독립 협회가 이에 적극 반대하여 저지하였다(1898.2).
- *조차(組借):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 ⑤ 갑신정변의 사후 처리로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 당시 양국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경우 서로 통보하기로 합의했는데,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을 빌미로 서로 군대를 파병하여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한 계기가 되었다.

30 - 처용무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
- ②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 의식이다.
- ③ 부처의 영취산 설법 모습을 재현하였다.
- ④ 창과 아니리, 너름새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⑤ 양반, 파계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답> ①

'한국의 무형 문화유산 - (가)'라는 제목 아래 '궁중 무용 중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5명이 중앙과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춤을 춥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면의 팔죽색은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처용무(處容舞)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처용무는 궁중 무용의 하나로 본디 궁중 연례(宴禮)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음력 선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복을 구하며(求福) 춘 춤이다. 동해 용왕(龍王)의 아들로 사람 형상을 한 처용(處容)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천연두를 옮기는 역신(疫神)으로부터 인간 아내를 구해냈다는 처용 설화를 바탕으로 한다.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에서 5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기 때문에 '오방처용무(五方處容舞)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답 해설>

②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 의식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을 가리킨다. 2001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③ 부처의 영취산 설법 모습, 즉 영산회상을 재현한 것은 영산재(靈山齋)이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의 모습을 재현한 불교 의식으로, 영혼을 발심시키고, 그에 귀의하게 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국가의 안녕과 군인들의 무운장구 등을 위해서도 행한다. 하늘과 땅의 영가(靈駕)와 모든 성인(聖人)을 맞아들이는 의식에서 시작하여 부처의 영적 세계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봉송(奉送) 의례로 마무리된다.

④ 창과 아니리, 너름새 등으로 구성된 것은 판소리이다. 200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북치는 사람)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장르이다.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표현력이 풍부한 창(노래)과 일정한 양식을 가진 아니리(말), 풍부한 내용의 사설과 너름새(몸짓) 등으로 구연된다.

⑤ 양반, 파계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남사당놀이이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남사당놀이는 말 그대로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광대극'으로 원래 유랑 예인들이 널리 행하던 다방면의 전통 민속 공연이다. 특히 탈춤과 꼭두각시놀음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물론이고 하층민들의 억압받는 삶을 놀이로 보여주었다.

31- 을미개혁

31.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였다.
- ③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였다.
-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어제 발행된 관보를 보았는가? 지난 8월 국모 시해 사건 이후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의 일환으로 태양력을 시행한다더니, 그에 맞추어 연호를 새로 정하라는 조칙이 내려졌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그래서 내일부터 양력 1월 1일이 시작되고, 새로운 연호는 건양으로 정해졌다고 하네'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개혁'은 을미개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95.8~1896.2).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면서[태양력 시행] 연호를 건양(建陽)으로 정하였다(~1897년 8월 16일까지 사용).

군제를 개편하여 친위대(중앙의 육군)와 진위대(지방군)를 설치한 것은 을미개혁 때의 일이다(1895년 9월, 칙령 170호)(훈련대 폐지). 친위대는 수도를 방위하는 임무를 담당하여 처음에는 대대로 편성되었다가 1896년 4월에 연대로 편성하였다(1905년 4월에 시위 보병 연대로 개편). 진위대는 지방의 질서 유지와 변경 수비를 담당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광무개혁 중 하나로)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 때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지계아문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1901년 10월부터 지계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1904.4).
- ② 지방 행정 구역을 8도에서 23부(337군)로 개편한 것은 제2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12-1895.8). 정확하게는 189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후 이와 같은 '급진적인'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강해져 이듬해인 1896년 8월에 13도제로 다시 바뀌었다(1896.8.4). 즉 기존의 8도제에서 남부(충청·전라·경상)와 북부(평안·함경)의 5개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었다.
- ④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일이다(1894.6.25~12.17)[6월 28일(양력 7월 30일) 의결된 군국기무처 의안(12개) 중 일부]('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 ⑤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한 것은 1895년 2월의 일이다(1895.2.2). 이후 조선 정부는 곧바로 근대적인 학교 설립에 착수하였다(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32 - 통리기무아문(개화 정책)

32. (가) 기구를 통해 추진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 ②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 ③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 ④ 신문지법을 공포하였다.
- ⑤ 서당 규칙을 제정하였다.

정답> ①

'이곳은 기기창 건물 중 하나인 번사창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정부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가)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기구의 건의로 청에 파견한 영선사* 일행에 유학생을 포함시켜 근대 문물을 배워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영향으로 설치된 근대적 무기 공장이 바로 기기창이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기구'는 고종 17년인 1880년 12월에 설치된 통리기무아문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각종 개화 정책 추진).

신식 군대인 별기군(교련병대)이 창설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4월의 일이다. 강병책으로 신식 군사 연습을 실시하려는 계획을 탐지한 일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당시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일본 측 제안을 전달). 그런데 별기군의 급료나 피복 지급 등 모든 대우가 구식 군대보다 월등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왜별기(倭別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차별 대우는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임오군란이 일어나는 한 계기가 되었다.

*영선사는 중국(청)의 선진 문물(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견학하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1881.9~1882.11). 온건 개화파인 윤양 김윤식(1835~1922)이 이끌었다. 파견된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이 설립되는데 기여하였다(1883.3).

오답 해설>

- ②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 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의 군 통수권을 강화시킨 것은 광무 3년(고종 36)인 1899년 6월의 일이다(~1904.9).
- ③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통편』을 편찬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 ④ 신문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07년(광무 11) 7월의 일이다(1907.7.24)('광무신문지법')(이완용 내각의 제1호 법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관계법으로, 이 법을 통해 통감부와 친일 내각은 국내에서 발행되던 신문을 비롯한 민족 언론을 탄압하였다.
- ⑤ 일제가 서당 규칙을 제정하여 우리 민족의 '개량 서당 설립 운동'을 방해한 것은 1918년 2월의 일이다(1918.2.21). 서당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여 반일적인 서당의 설립을 막으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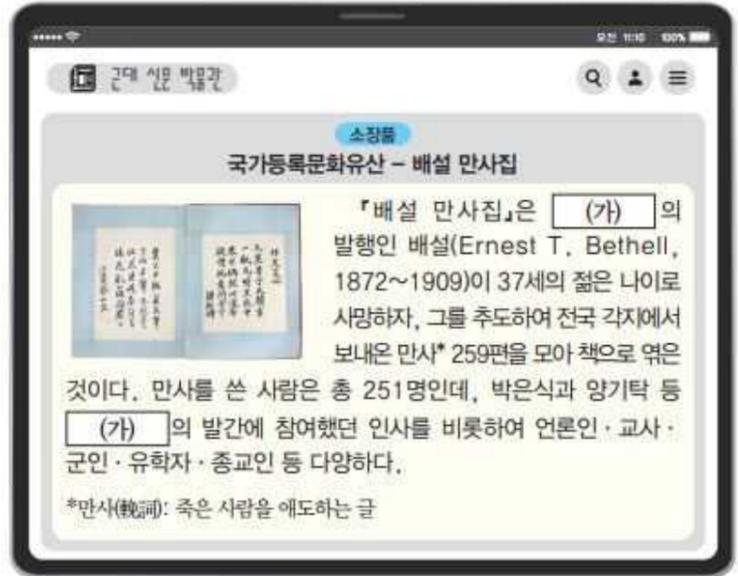
<33번 오답 해설>

*여권통문(女權通文):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운동 단체인 찬양회(贊襄會)의 이름으로 발표된 일종의 여성 인권 선언이다. 찬양회는 사실 통문을 먼저 돌린 직후 조직되었다. 양성원(養成院), 순성회(順成會), 찬양회(讚揚會) 등으로도 불렸다. 통문에서 '신체 수족 이목이 남녀간에 다름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자는 병신 모양으로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남자의 절제를 받는가? 여학교를 세워 남녀평등을 이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권 및 정치 참여권을 내용으로 하는 찬양회의 통문은 천부 인권 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이후 여학교 설립 운동과 여성의 계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이 되었다. 독립 협회가 이끈 만민 공동회의 자유 민권 운동에도 참가하였다.

⑤ 순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은 고종 33년인 1896년 4월 7일 발행된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은 창간 이듬해인 1897년 1월부터 한글판(국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하여 발행되었다.

33 - 대한매일신보

33.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박문국에서 발행하였다.
- ②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③ 여권통문을 처음 게재하였다.
- ④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
- ⑤ 순한글판으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었다.

정답> ④

'국가등록문화유산 - 배설 만사집'이라는 제목 아래 '배설 만사집』은 (가)의 발행인 배설(Eenest T. Bethell, 1872~1909)이 37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그를 추도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만사* 259편을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만사를 쓴 사람은 총 251명인데, 박은식과 양기탁 등 (가)의 발간에 참여했던 인사를 비롯하여 언론인·교사·군인·유학자·종교인 등 다양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신문'은 영국인 베델(1872~1909)과 우강 양기탁(1871~1938)이 함께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4.7.18).

대한매일신보는 (황성신문, 제국신문과 함께) 국채 보상 운동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였다(1907.2~1908.7).

*만사(輓詞):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글

오답 해설>

- ① 박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은 근대적 신문의 효시로, 순 한문 신문인 한성순보이다. 박문국에서 1883년(고종 20) 10월에 처음 발행되었다(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 참고로 근대적 인쇄소인 박문국은 같은 해 8월에 박영효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 ② 일종의 농촌 계몽 운동인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한 신문은 동아일보이다(1931~1934).
- ③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처음 게재한 신문은 황성신문이다(1898.9). 정확하게는 황성신문 1898년 9월 8일자에 처음 보도되었다(독립신문도 이후 보도).

34 - 독립 협회의 활동

34.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2점]

독립문 주춧돌 놓는 예식을 독립 공원 부지에서 열었다. …… 회장 안경수 씨가 연설하기를, “(가) 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단지 회원이 네다섯 명이더니 오늘날 회원은 수천 명이다. 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좋아하기에 심지어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인민 중에서 독립문 세우는 데 돈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외국 사람 중에서도 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조선 사람들도 오늘부터 조선에서 모든 일을 (가) 하듯이 시작하여 모두 합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켰다.
- ③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 ④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정답> ③

'독립문 주춧돌 놓는 예식을 독립 공원 부지에서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회장 안경수 씨가 연설하기를, (가)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단지 회원이 네다섯 명이더니 오늘날 회원은 수천 명이다. 조선 인민들이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좋아하기에 심지어 궁벽한 시골에 사는 인민 중에서 독립문 세우는 데 돈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외국 사람 중에서도 돈 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을 보면 조선 사람들도 오늘부터 조선에서 모든 일을 (가) 하듯이 시작하여 모두 합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단체'는 고종 33년이자 건양 원년인 1896년 7월에 세워진 독립 협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독립 협회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1898년[고종 35(광무 2)] 10월에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1898.10.29). 이로써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 추진이 가능해졌으나 갑자기 마음을 바꾼 고종의 독립 협회 해산 명령으로 좌절되고 말았다(1898.12.25(민회 금지령)).

오답 해설>

- ①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 자강회이다(1906.4). 대한 자강회는 국민 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함으로써 독립의 기초를 다진다는 취지 아래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 계몽 단체이다. 1905년 5월 조직된 헌정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발족하였는데,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해산당하고 말았다(1907.8).
- ②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킨 단체는 보안회이다(1904.7.13). 보민회(保民會)라고도 불렸다.
- ④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한 단체는 신민회이다(1908.9).
- ⑤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한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이다(1919.11).

35 - 제1차 한일 협약

35. 밑줄 그은 '사업'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화폐로 보는 한국사



백동화(白銅貨)는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분의 동전이다.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가 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러일 전쟁 중에 재정 고문으로 임명된 메카타 다네타로의 주도하에 전환국을 폐지하고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동화의 발행이 중단되었다.

- ① 군국기무처의 활동을 조사한다.
- ② 당오전이 발행된 배경을 파악한다.
- ③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 ④ 대한 광복회가 결성된 목적을 살펴본다.
- ⑤ 제1차 한일 협약 체결의 영향을 알아본다.

정답> ⑤

'화폐로 보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백동화(白銅貨)는 전환국에서 발행한 액면가 2전 5분의 동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당시 재정 궁핍으로 본위 화폐인 은화는 거의 주조되지 않았고, 보조 화폐인 백동화가 주로 제조되어 사용되었다. 러일 전쟁 중에 재정 고문으로 임명된 메카타 다네타로의 주도하에 전환국을 폐지하고 백동화와 엽전을 일본 제일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백동화의 발행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 속 '사업'은 재정 고문 메카타 다네타로(1853~1926)의 주도로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을 가리킨다(1905.7~1909.12).

메카타가 대한 제국의 재정 고문이 된 것은 내정 개선의 구실로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초빙한다는 사항이 포함된 제1차 한일 협약 때문이다(1904.8.22)(제1조)(고문 정치). 참고로 제2조에서는 외무[외교] 고문도 두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메카타(1853~1926)가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더햄 화이트) 스티븐스(1851~1908)가 외무[외교]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군국기무처는 제1차 갑오개혁을 이끈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이다(1894.6.25~12.17).
- ② 당오전이 처음 발행된 것은 고종 20년인 1883년 2월의 일이다(~1895). 이후 같은 해 7월 전환국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당오전을 주조하였다(1904년 11월 전환국 폐지). 하지만 당오전은 명목 가치가 실질 가치의 2~3배 밖에 안 되는 조악한 화폐였고, 민간에서도 당오전을 위조하여 물가가 더욱 급등하였다.
- ③ 삼국 간섭이 일어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1894.4.23). 삼국 간섭이란 청일 전쟁 결과 청과 일본 사이에 강화 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1895.4.17),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일본의 랴오둥 반도 영유에 반대하여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랴오둥 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한 사건을 가리킨다.
- ④ 대한 광복회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풍기) 광복단과 조선 국권 회복단의 일부 인사가 통합하여 비밀리에 결성되었다(~1918.1). 의병장 허위(1854~1908)의 문하인 고현 박상진(1884~1921)을 주축으로 하였으며 국권 회복과 공화정체의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1918년 1월에 전국의 조직망 발각). 박상진은 1919년 2월 공주 지법예심에 이어 1920년 9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다 1921년 8월 11일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함께 뜻을 도모했던 채기중, 김한중도 같이 순국).

36- 연해주 지역의 민족 운동

36. (가)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이다.

1937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한 이 명령의 시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가)의 한인 10만 명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

- ① 권업회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였다.
- ②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하였다.
- ③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 ④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 ⑤ 서전서숙과 명동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이 문서는 일제에 협력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가)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명령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937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이 승인한 이 명령의 시행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가)의 한인 10만 명 이상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지역'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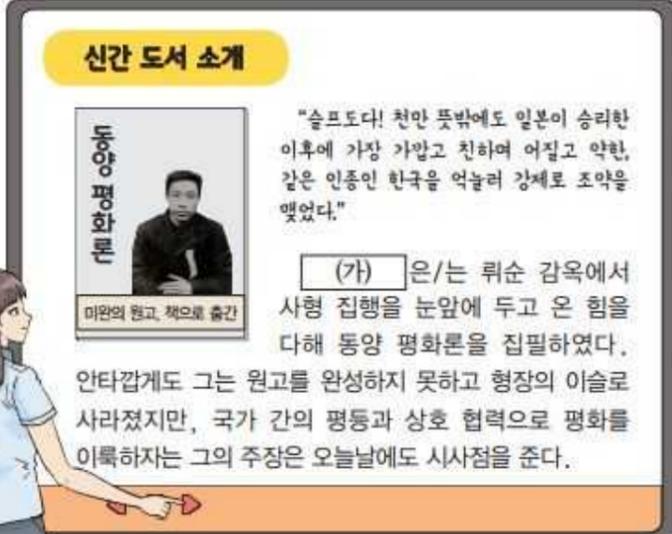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조직된 것은 1911년 6월의 일이다(~1914.8). 이듬해인 1912년 4월에는 기관지이자 항일 신문인 권업신문이 발행되었다.

오답 해설>

- ② (이회영, 이상룡 등의 망명 애국지사들이)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를 설립한 곳은 서간도[남만주] 삼원보이다(1911.4).
- ③ (1919년 2월 8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곳은 일본 도쿄[동경]이다.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 ④ 독립군 양성을 위해 우성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이 결성된 곳은 미주 지역인 하와이다(1914.6).
- ⑤ 서전서숙은 1906년 8월경 북간도[동만주](용정)에 세워진 학교이다[보재 이상철(1870~1917)을 중심으로 한 망명 애국지사들 주도]. 또 명동 학교는 1908년 4월에 북간도[동만주](화룡현 명동촌)에 설립된 학교이다[규암 김약연(1868~1942) 주도]. 참고로 나운규(1902~1937)와 윤동주(1917~1945)가 명동 학교 출신이다.

37- 안중근 의사

37.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신간 도서 소개

“슬프도다! 천만 뜻밖에도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가장 가깝고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가)은/는 뤼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국가 간의 평등과 상호 협력으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준다.

- 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 ②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 ③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 ④ 샌프란시스코에서 D.W.스티븐스를 처단하였다.
- ⑤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정답> ②

'신간 도서 소개'라는 제목 아래 동양평화론이 제시되어 있다. '(가)은/는 뤼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눈앞에 두고 온 힘을 다해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원고를 완성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국가 간의 평등과 상호 협력으로 평화를 이룩하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시사점을 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책 내용으로 '슬프도다! 천만 뜻밖에도 일본이 승리한 이후에 가장 가깝고 친하며 어질고 약한, 같은 인종인 한국을 억눌러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안중근 의사(1879~191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 역에서 대한 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사살하였다(1909.10.26).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만주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었다. 안중근 의사는 거사 후 사형 선고를 받고 뤼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던 중 순국하였다(1910.3.26).

오답 해설>

- ①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한 인물은 이재명 의사(1886~1910)이다(1909.12.22).
- ③ 타이중에서 일본 육군 대장(구니노미야 구니히코, 일제 천황 히로히토의 장인)을 저격한 인물은 조명하 의사(1905~1928)이다(1928.5.14)(구니노미야는 이때의 부상으로 이듬해 1월 사망). 타이중은 타이완[대만]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이다.

- ④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친일 인사인 스티븐스를 사살한 인물은 장인환(1876~1930)이다(1908.3.23). 처음에는 전명운(1884~1947)이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쏘았으나 격발되지 않았다. 그러자 전명운은 스티븐스에게 달려가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스티븐스가 이에 맞서 전명운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장인환이 총을 쏘았다. 하지만 첫발은 전명운의 어깨를 맞혔고, 연달아 쏜 두 발이 스티븐스를 맞추었다(이틀 후 사망).
- ⑤ 서울역에서 신임 총독(사이토 마코토)의 마차에 폭탄을 투척한 인물은 국민 노인 동맹단 소속의 강우규 의사(1855~1920)이다(19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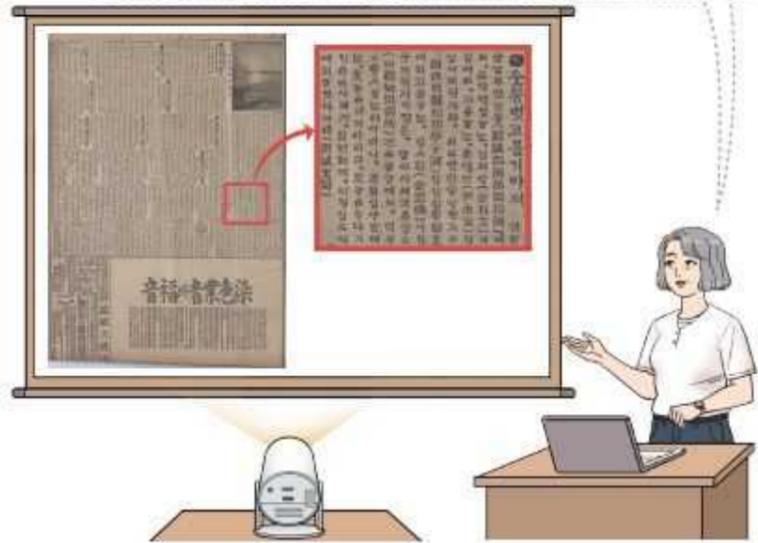
<38번 오답 해설>

- ③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경남 진주에서 조직된 조선 형평사가 창립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1923.4.24)(형평 운동).
- ④ 나운규(1902~1937)가 제작한 (무성 영화) 아리랑이 서울[경성] 단성사에서 개봉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1926.10.1).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상영되었다.

38-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사회 모습

38. 밑줄 그은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개성에서 청년 두 명이 옷통을 벗고 일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 태형에 처해졌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시기에는 기사의 내용처럼 사소한 사안에도 태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



- ① 육영 공원에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였다.
- ② 애국반이 편성되어 일상생활이 통제되었다.
- ③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어 형평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나운규가 제작한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개봉되었다.
- ⑤ 경북궁에서 조선 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정답> ⑤

'개성에서 청년 두 명이 옷통을 벗고 일하다가 순사에게 발견되어 태형에 처해졌다는 신문 기사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제가 조선 태형령을 시행한 시기에는 기사의 내용처럼 사소한 사안에도 태형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집행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경북궁에서 조선 물산 공진회가 최초로 개최된 것은 1915년 9월의 일이다(1915.9.11~10.30). 일제는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성과를 선전하기 위하여 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공진회장 조성 과정에서 경북궁의 많은 건물이 헐렸다.

오답 해설>

- ① 육영 공원은 고종 23년인 1886년 9월에 설립되었다(~1894. 1). 육영 공원은 근대적 공립 학교로 선발 인원은 35명이고, 지원 자격은 좌원의 경우 '7품 이하 젊은 현직 관리', 우원의 경우 '15~20세의 양반 자제'였다. 영어, 수학, 자연 과학 등을 교과목으로 하였으며 헐버트, 길모어, 벙커 등의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하였다.
- ② 애국반이 편성되어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한 것은 1938년 7월부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반은 1938년 7월 7일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 조직되면서 각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되었다.

39 - 조선 물산 장려회 창립(평양)

39. (가), (나)가 공포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
 회사령은 폐지한다.
 - 부칙
 1.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구령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 영 시행 당시 존재하는 것은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

(나)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 규정
 제1조 조선의 농산어촌 진흥에 관한 방침, 시설 및 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

- ① 함경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 ②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창립되었다.
- ③ 황국 중앙 총상회의 상권 수호 운동이 전개되었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 ⑤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정답> ②

(가)에 '회사령 폐지에 관한 건/회사령은 폐지한다/ - 부칙/ 1.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구령에 의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 영 시행 당시 존재하는 것은 조선 민사령에 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회사령이 폐지된 것은 1920년 4월의 일이다(신고제[계출제] 화됨). 일제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으로 폐지한 것이다. (나)에는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 규정/ 제1조 조선의 농산어촌 진흥에 관한 방침, 시설 및 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제는 1932년부터 농촌 경제의 몰락에 따른 사회 불안의 억제와 각종 농민 운동의 활성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조선 총독부 주도로 (조선) 농촌 진흥 운동이라는 관제 농민 운동을 진행하였다(~1940). 조선 총독부 농촌 진흥 위원회 규정이 발표된 것은 1932년 10월의 일이다.

조선 물산 장려회가 평양에서 고당 조만식(1883~1950) 등의 주도로 창립된 것은 1920년 8월의 일이다(물산 장려 운동).

오답 해설>

① 방곡령은 국내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방곡령 시행에 대한 규정은 고종 20년인 1883년 7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 통상 장정에 명시되었다(제37관). 일본 상인들의 무분별한 곡물[특히 쌀과 콩] 반출로 방곡령은 이후 계속해서 내려졌는데 대표적인 방곡령으로는 고종 26년인 1889년 5월 황해도에서 관찰사 조병철이 선포한 방곡령, 같은 해 10월 함경도에서 관찰사 조병식이 선포한 방곡령, 이듬해인 1890년 2월에 황해도에서 관찰사 오준영이 선포한 방곡령을 들 수 있다.

- ③ (상권 수호를 위해) 황국 중앙 총상회가 조직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7월의 일이다(상권 수호 운동). 같은 해 12월에 수구파 정부가 독립 협회를 탄압할 때 함께 해산되었다.
- ④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의 일이다(실제 시행된 것은 1950년 3월).
- ⑤ 일제가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1938.4.1).

40 - 민립 대학 설립 운동

40. 다음 자료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므로 금일까지 실지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이 거창하고 어렵다고 시작을 아니하면 언제까지든지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은 생겨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 전도의 다수한 유지를 망라하여 민중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이상재, 이승훈 등의 주창으로 수일 전에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장차 각 부·군에서 다수한 발기인의 참가를 구하여 경성에서 발기회를 열고 실행 방법을 결정할 터이다.

1895	1911	1919	1924	1938	1942
(가)	(나)	(다)	(라)	(마)	
한성 사범 학교 설립	제1차 조선 교육령	3·1 운동	경성 제국 대학 개교	제3차 조선 교육령	조선어 학회 사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③

'대학을 세운다는 일은 극히 거창하여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바가 아니므로 금일까지 실지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그러나 일이 거창하고 어렵다고 시작을 아니하면 언제까지든지 조선 사람의 대학이라는 것은 생겨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번에 조선 전도의 다수한 유지를 망라하여 민중적 운동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힘을 합하여 민립 대학 한 곳을 세워 보고자 이상재, 이승훈 등의 주창으로 수일 전에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선정하였는데, 장차 각 부·군에서 다수한 발기인의 참가를 구하여 경성에서 발기회를 열고 실행 방법을 결정할 터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된 것은 1922년 11월의 일이다(1922.11.23). 이듬해인 1923년 3월에 조선 민립 대학 (설립) 기성회 발기[창립] 총회가 열렸다(1923.3.29)(민립 대학 설립 운동). 주어진 자료는 동아일보 1922년 11월 30일자 보도 기사이다('民立大學을 建設코저 曷성준비회를 새로히 조직').

주어진 연표에서는 1919년 3·1 운동에서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이 개교한 '(다) 시기'에 해당한다.

41 - 원산 총파업 이후의 사실

41.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탐구 활동 보고서>
○학년 ○○반 이름: ○○○

◎ 주제: (가)에 대한 국외 반응

◎ 탐구 목적
라이징 선 석유 주식회사의 문평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에 대한 국외 반응을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자료 및 해설

在日日本労働者
爭議調査員特派
朝鮮、支那、滿洲各方面視察

이것은 재일본노총에서 (가)을/를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파견한다는 당시 신문 기사이다. 기사에 보도된 일본의 조선인 노동 단체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여러 노동 단체도 격려와 후원을 하였다.

-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 ② 강주룡이 을밀대 지봉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다.
- ③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 천일 은행이 창립되었다.
- ④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직되었다.
- ⑤ 고을의 소작료에 반발하여 압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하였다.

정답> ②

'탐구 활동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주제로 '(가)에 대한 국외 반응'이 제시되어 있다. 탐구 목적으로 '라이징 선 석유 주식회사의 문평 공장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일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 운동에 대한 국외 반응을 당시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자료 및 해설에서 '이것은 재일본노총에서 (가)을/를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를 파견한다는 당시 신문 기사이다. 기사에 보도된 일본의 조선인 노동 단체뿐 아니라 중국 지역의 여러 노동 단체도 격려와 후원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사건'은 1929년 1월에 시작된 원산 총파업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9.1.1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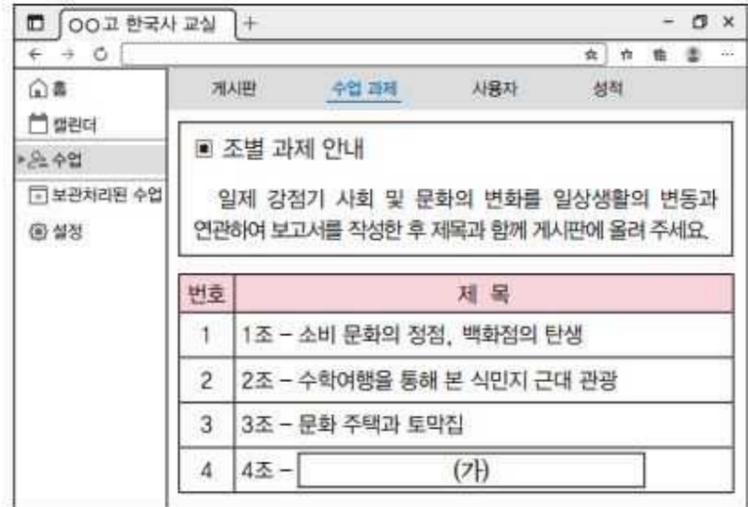
(평원 고무 공장 파업 여공 강주룡(1901~1931)이 임금 삭감에 저항하여 (평양의) 을밀대(평양의 고구려 시대 누정) 지봉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것은 1931년 5월의 일이다(1931.5.28). 지봉 위에서 강주룡은 무산자의 단결과 노동 생활의 참상을 호소하였다. 체포되어 평양 경찰서로 끌려간 뒤에도 76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등 항의하다 결국 이듬해 서른한 살의 나이로 숨지고 말았다.

오답 해설>

- ①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것은 1908년 12월의 일이다 (1945년 8월 일제 패망까지 지속).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대한 제국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된 식민지 착취 기관이다.
- ③ 황실의 지원을 받아 대한 천일 은행이 창립된 것은 고종 36년이자 광무 3년인 1899년 1월의 일이다(초대 은행장 민병석, 민족계 은행). 대한 천일 은행은 설립 시부터 고종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1906년까지 황실과 고위층이 이용하는 특수 은행의 성격을 지님, 이후 경영진을 쇄신하여 민간 은행화)(지금의 우리은행).
- ④ 전국 단위의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이 조직된 것은 1924년 4월의 일이다. '노농 계급 해방', '완전한 신사회 실현',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 '노농 계급의 복리 증진과 경제적 향상 도모' 등을 내세웠다. 이후 1927년 9월 조선 노농 총동맹은 조선 노농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었다.
- ⑤ 고을의 소작료에 반발하여 암태도 소작 쟁의가 발생한 것은 1923년 8월의 일이다(~1924.8). 전남 신안군의 암태도 농민들은 1년 동안 소작 쟁의를 벌여 결국 승리하였다.

42 - 일제 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

42.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서양식 의료의 수용, 광혜원
- ② 근대적 우편 제도의 시작, 우정총국
- ③ 전시 통제 체제 속에서 강요된 여성복, 몸뻬
- ④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 운동
- ⑤ 상품 광고의 새로운 장을 연 컬러텔레비전 방송

정답> ③

'조별 과제 안내'라는 제목 아래 '일제 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를 일상생활의 변동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목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목으로 '1조 - 소비 문화의 정점, 백화점의 탄생', '2조 - 수학여행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 관광', '3조 - 문화 주택과 토막집'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선지를 고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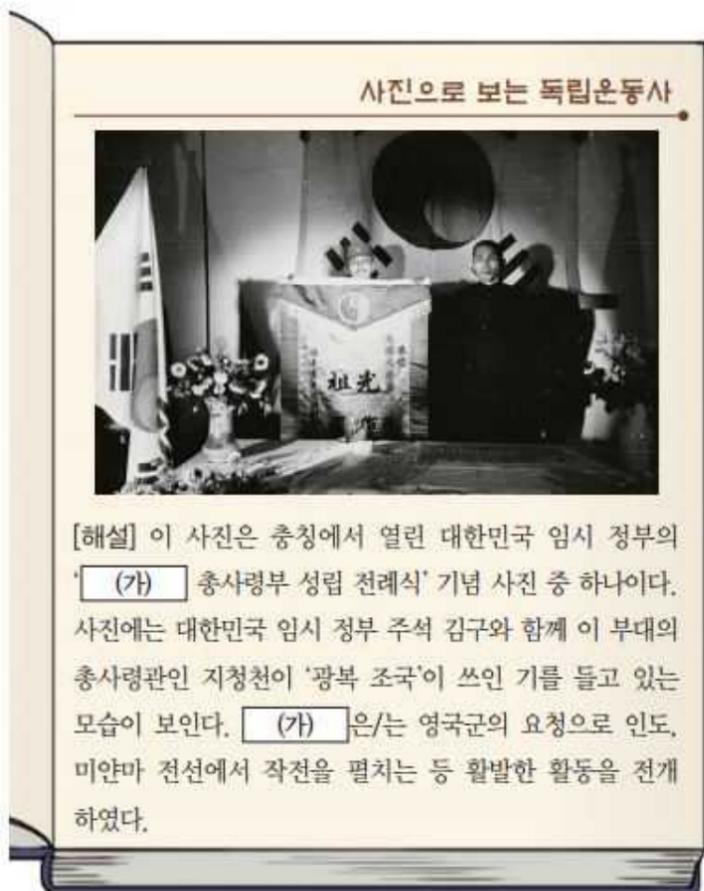
몸뻬(일본어: もんぺ)는 원래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바지로, 일제 강점기 말에 일제에 의해 일본과 조선의 부녀자들에게 강제로 보급된 험렁한 바지를 가리킨다('일바지' 또는 '왜바지'). 당시 일제는 국민복 착용과 함께 몸뻬 착용을 강요하였다.

오답 해설>

- ① 호러스 알렌(1858~1932)의 건의로 광혜원이 세워진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2월의 일이다(3월에 제중원으로 개명). 광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근대식] 국립 병원이다.
- ② 우편 사무를 관장하는 우정총국이 처음 설치된 고종 21년인 1884년 3월의 일이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에 열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갑신정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폐지되었다(이후 부활 논의도 있었지만 그 기능이 1893 전우총국, 1894년 공무아문 역체국, 1895년 농상공부 통신국, 1900년 통신원 등으로 이어짐).
- ④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하고)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내세운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4월의 일이다.
- ⑤ 상품 광고의 새로운 장을 연 컬러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 12월의 일이다(1980년 12월 1일 KBS 1TV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2일부터 KBS 2TV와 MBC TV에서도 방송). 완전한 컬러텔레비전 방송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43 - 한국 광복군

43.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② 영릉가에서 일본군에 승리를 거두었다.
- ③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 ④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 ⑤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④
 '사진으로 보는 독립운동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로 '이 사진은 충칭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가)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기념 사진 중 하나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진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김구와 함께 이 부대의 총사령관인 지청천이 광복 조국이 쓰인 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가)은/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부대'는 중국의 임시 수도인 충칭에서 조직된 한국 광복군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40.9.17).
 한국 광복군은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1945년 초부터 미국 전략 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의 도움을 받아 1945년 8월 18일 수도 서울 탈환을 목표로 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는데(같은 해 3월 국내 정진군 총사령부 조직), 같은 해 8월 15일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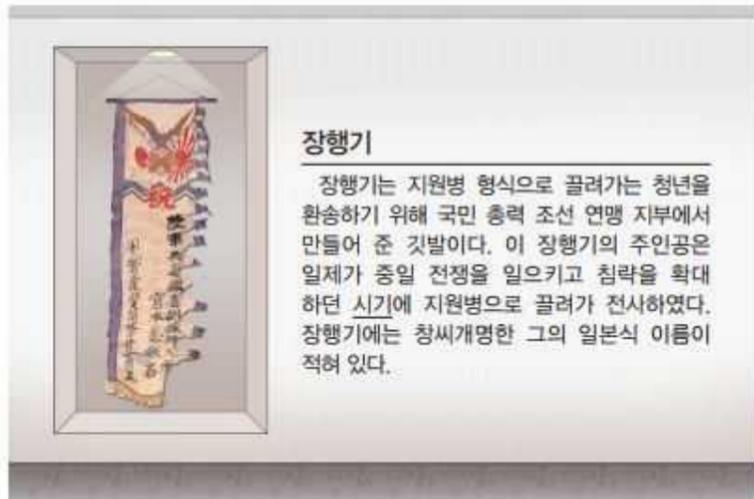
오답 해설>
 ①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된 부대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이다. 간도 참변 이후 소만 국경 지대인 밀산(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에 위치한 시)에 집결한 항일 독립군 부대(10개)는 대한 독립 군단을 조직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1920.12). 하지만 1921년 6월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브스크]에서 참변을 당하여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자유시 참변, 1921.6.28).

②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한 부대는 조선 혁명군(총사령 양세봉)이다. 조선 혁명군은 영릉가에서 중국 (항일) 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군[관동군]과 싸워 크게 승리하였다(1932.3)(영릉가 전투)(한·중 연합 작전). 영릉가는 중국 랴오닝성[요령성] 신빈현에 위치한 지명이다.
 ③ (만주 지린성 왕청현 봉오동에서 벌어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부대는 흥범도 부대를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 부대이다. 일본군 제19사단의 월강 추격 대대를 크게 격파하였는데, 일본군 전사자 157명, 중상자 200여 명, 경상자 100여 명, 독립군 전사자 장교 1명, 병사 3명, 중상자 2명으로 보도되었다(1920.6.7).
 ⑤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한 부대는 지청천이 이끈 한국 독립당 소속의 한국 독립군이다.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1932년 9월과 11월). 쌍성보는 흑룡강성 하얼빈 서남방에 위치한다.

44 - 일제 강점기 말의 모습

44.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국방헌금 모금에 적극 협력하는 부호
- ②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 ③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 ④ 내선일체에 협력하자는 논설을 쓰는 언론인
- ⑤ 국민 징용령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는 노동자

정답> ③

'장행기'라는 제목 아래 '장행기는 지원병 형식으로 끌려가는 청년을 환송하기 위해 국민 총력 조선 연맹 지부에서 만들어 준 깃발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장행기의 주인공은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확대하던 시기에 지원병으로 끌려가 전사하였다. 장행기에는 창씨개명한 그의 일본식 이름이 적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시기'는 1937년 7월 7일 시작된 중일 전쟁 이후인 일제 강점기 말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장행기(壯行旗)는 청년들이 죽으러 나갈 때 앞세운 깃발이라고 해서 '청춘만장(靑春萬章)'이라고 불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실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진 것은 1908년 7월의 일이다. 같은 해 11월에 이인직(1862~1916)의 신소설 『은세계』를 처음으로 신극화하여 공연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일제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국방헌금' 또는 '황국 위문금'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특히 일제 강점기 말에 자산 계층인 부호들은 국방헌금, 국방헌품, 국방헌신 등의 '헌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②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아동용과 성인용 두 종류가 있었다. ④ 내선일체(內鮮一體)란 일제와 한국이 한 몸이라는 뜻으로,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1874~1955)가 제7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요되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구호로 선만일여(鮮滿一如), 내선융화(內鮮融和), 일시동인(一視同仁), 오족협화(五族協和) 등이 있다.

⑤ 국민 징용령이 생긴 것은 1939년 7월이고 조선에도 적용된 것은 같은 해 10월의 일이다. 이후 1944년에 이르러 강제 징용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이 조선에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부터이다. 그런데 징용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기존 동원 체계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점에서 일제는 조선에서의 전면 시행은 유보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44년 9월에 이르러 징용 대상자(17세 이상 50세 미만) 중 20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대한 일반 징용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인을 대량 동원해 일본 본토를 비롯한 사할린·중국·남방 등지의 광산·토목 공사장·군사 시설 공사장·군수 공장 등에 투입하였다.

*국가 총동원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고(1938.4.1), 시행된 것은 같은 해 5월 5일부터이다.

45 - 충남 공주의 역사적 사실

45. 다음 안내에 따라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금강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어 선사 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이 상호 경쟁하던 시기에는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백제 고분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였고, 이후 조선 시대에도 감영이 있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동학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등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민족 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다양한 유적과 기념물에 대해 조사한 후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 ① 갑 - 수양계 유적을 조사하여 우리 고장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석기를 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② 을 -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무덤을 조사하여 무령왕이 중국 남조,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③ 병 - 만인의총을 조사하여 정유재란 당시 우리 고장의 백성들이 조명 연합군과 함께 결사 항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④ 정 - 만석보 유지비를 조사하여 우리 고장 농민들이 군수 조병감의 수탈에 저항하여 봉기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⑤ 무 - 아우내 3·1 운동 독립 사적지를 조사하여 유관순이 우리 고장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답> ②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의 유적과 기념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우리 고장은 금강 중류에 위치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남한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이 있어 선사 시대부터 우리 고장에 사람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이 상호 경쟁하던 시기에는 백제의 수도로서 백제 중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던 곳으로 백제 고분을 통해 당시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최승로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12목 중의 하나였고, 이후 조선 시대에도 감영이 있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에는 동학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등 외세를 물리치기 위한 민족 운동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모둠별로 우리 고장의 다양한 유적과 기념물에 대해 조사한 후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우리 고장'은 충남 공주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무덤은 곧 공주 무령왕릉을 가리킨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내에는 무령왕릉 및 6호분의 벽돌무덤과 1~5호분의 돌방무덤 등 대략 20여 기의 고분들이 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2021년 9월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답 해설>

① 수양개 유적은 충북 단양에 위치한다. 단양 수양개 유적에서는 스페찌르개와 함께 돌날과 몸돌 등의 쥘석기도 출토되었다. 참고로 스페찌르개는 스페*를 만들어서 창이나 화살 등에 꽂아서 쓰는 찌르개로, 찌르거나 가르는 데 사용된 쥘석기이다(후기 구석기 시대 유물).

*스페: 자루나 살대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③ 만인의총이 위치한 곳은 전북 남원이다(남원 만인의총). 정유재란 때인 1597년(선조 30) 8월 남원(성) 전투[남원(성) 싸움]에서 전사한 민·관·군 1만여 명의 시신을 묻은 곳이다.

④ 만석보 유지비가 위치한 곳은 전북 정읍(당시 명칭 '고부')이다(1973년 건립). 만석보는 전봉준(1855~1895)이 주도한 고부농민 봉기가 일어난 계기가 된 저수지이다[1894년(고종 31) 1월 10일].

⑤ 아우내 3·1 운동 독립 사적지란 1919년 4월 1일 아우내 장터(지금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사적지이다. 유관순 열사(1902~1920)가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같이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다.

<46번 오답 해설>

*남북 협상: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연석 회의' [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뒤이어 남북한 주요 단체 대표들 간에 두 차례의 회의(4월 27일과 30일)가 또 열렸는데, 이를 '남북 지도자 협의회' [정식 명칭은 '남북조선(전조선)제정당사회단체지도자협의회']라 한다. 그런데 또 '4김 회담'이라고 하여 김구와 김규식, 김일성과 김두봉 간의 회담이 4월 26일과 30일에 각 진행되었다.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의 남북 연석 회의는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본회의를 지칭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통설은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연석 회의 본회의와 남북 지도자 협의회, 4김 회담을 모두 통틀어 '남북 연석 회의'(이른바 '남북 협상')라고 부르고 있다.

46 - 6·25 전쟁

46.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저는 지금 부산의 재한 유엔 기념 공원 내에 있는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 와 있습니다. [가]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4만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어 추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든 이곳에서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①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②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③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④ 김구, 김규식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하였다.
- 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정답> ⑤

'저는 지금 부산의 재한 유엔 기념 공원 내에 있는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앞에 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4만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어 추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든 이곳에서 평화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전쟁'은 1950년 6월에 발발한 6·25 전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1953.7.27).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6·25 전쟁 기간 중인) 1952년 7월의 일이다 (1952.7.7).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다.

오답 해설>

- 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연설명 '아시아에서의 위기').
- ② 일본 도쿄에서 한일 기본 조약[한일 협정]이 체결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5년 6월의 일이다(한일 기본 조약 비준)(1965.6.22,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
- ③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줄여서 '국보위')를 설치한 것은 1980년 5월의 일이다 (1980.5.31).
- ④ 백범 김구(1876~1949), 우사 김규식(1881~1950) 등이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것은 1948년 4월의 일이다((1948.4.19~30).

47 - 5·10 총선거

47.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5·16 군사 정변 이후에 실시되었다.
- ②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 ④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하였다.
- ⑤ 신한 민주당이 창당 한 달 만에 제1 야당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②

'공보물로 본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라는 제목 아래 [해설]로 '이것은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에 출마한 장면 후보자의 선거 공보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후보자의 사진, 약력, 선거 구호 등이 보이고, 특히 자세한 투표 안내가 눈에 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총선거'는 1948년 5월에 치러진 '5·10 총선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장면(1899~1966)은 '서울 종로'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5·10 총선거는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제헌 국회가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였다(~1950.5.30)(임기 2년).

오답 해설>

- ① 5·16 군사 정변은 1961년 5월에 일어났으며, 이후 가장 가까운 국회 의원 총선거(총선)은 1963년 11월에 치러진 제6대 국회 의원 총선거이다(1963.11.26).
- ③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기구가 생겨난 것은 제7차 개헌인 이른바 '유신 헌법' 때이다(1972년 12월 27일 공포).
- ④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한 것은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 추진된 제3차 개헌 때의 일이다(1960.6.15). 1960년 7월 제5대 국회 의원 총선거(7·29 총선거)로 양원제 국회가 탄생하였다(1960.8.12~1961.5.16).
*허정 과도 정부: 제1공화국 붕괴 직후인 1960년 4월 27일 구성되어 1960년 6월 15일까지 존속한 과도 정부이다(제3차 개헌 이룸). 같은 해 7월 29일 총선거를 거쳐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였다.
- ⑤ 구신민당과 민주화 추진 협의회(민주협) 소속 인사를 중심으로 신한민주당(줄여서 '신민당')이 창당된 것은 1985년 1월 18일 이고, 한 달 뒤에 치러진 제12대 국회 의원 총선거(1985.2.12)를 통해 제1 야당으로 급부상하였다[이전의 제1 야당은 민주한국당(민한당)].

48 - 노태우 정부 시기의 사실

48.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국민 교육 현장이 발표되었다.
- ② 3당 합당으로 민주 자유당이 창당되었다.
- ③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었다.
- ④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정 교육대가 설치되었다.
-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정답> ②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열린다'는 제목 아래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이 어제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개회식 마지막 행사에서는 주제곡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비롯하여 이전 올림픽의 마스코트들이 함께 춤추는 장면이 연출되어 동서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마지막으로 '12년 만에 동서 양 진영이 함께 모인 이번 대회에서는 160개국의 선수 8,000여 명이 참가하여 과거 어느 대회보다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9월의 일이다(1988.9.17~10.2).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줄여서 '민자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창당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0년 1월의 일이다[1990.1.22.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125석)과 야당인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이 합당]. 이로써 1988년 4월 제13대 총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여소야대 정국이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풀지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바뀌었으며 평화민주당(김대중 총재)(70석)만이 유일한 원내 야당으로 남게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현장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12월의 일이다(1968.12.5).

③ 군 내부의 사조직인 하나회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3월부터의 일이다(~1994.10). 김영삼 정부 출범 초인 1993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권영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하나회 숙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하나회 출신인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 보직 해임되고 비하나회 출신이 임명되었다. 이후 4월에 2~4차 숙청이 이루어졌다(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형선 특전사령관 경질). 같은 해 5월에는 1979년 12·12에 연관된 장성들이 전역 조치되었다(이후 1994년 10월까지 진행).

④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삼청교육대가 군부대 내에 설치된 것은 전두환 정부* 수립 직전인 1980년 8월 초의 일이다(1980.8.4.~1981.1.25). 삼청교육대**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두환 정부 시기: 공식적으로는 1981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지속된 다섯 번째 공화국(제5공화국)을 가리킨다. 하지만 전두환이 최규하 정부 시기에 실제로 있다가 1980년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 주체 국민 회의의 간접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고 곧 같은 해 10월에 공포된 새 헌법(제8차 개헌)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다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 3월 3일에 취임, 제5공화국 출범) 넓게 보면 1980년 8월부터 전두환 정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4일 '사회악 일소 특별 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제시된 자료의 '삼청 5호 계획'의 이름하에 진행되었다. 명분은 폭력범과 사회 풍토 문란 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행해졌다. 1981년 1월까지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고, 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헌병대 요원과 검찰, 경찰서, 지역 정화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어 처벌받았다(A급 3,252명은 군법 회의에 회부, B·C급 3만 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 다시 2주 교육 후 훈계 방면, D급 1만 7,771명은 경찰에서 훈계 방면).

⑤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한 금 모으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의 말과 김대중 정부 시기의 초이다(1998.1~4, 1998년 2월에 김대중 정부 출범). 일반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 초로 보면 된다.

<49번 오답 해설>

④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낸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 항쟁이다. 같은 해 10월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이루어졌다(1987년 10월 29일 공포).

⑤ (이승만) 대통령이 하여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온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의 4·19 혁명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에 하야를 표명하고 다음 날인 27일에 사임서를 제출한 후 경무대(현 청와대)를 떠났다.

49 - 부마 민주 항쟁

49.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하계 답사 안내 •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 등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어난 (가)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기간: 2024년 ○월 ○○일~○월 ○○일

◆ 답사 일정

- 1일차: 부산대 10·16 기념관 - 국제 시장 - 부산 양서 협동조합 터
- 2일차: 경남대 교내 기념석 - 서항 공원 - 창동 사거리

◆ 주요 답사지



10·16 기념관



서항 공원 내 기념물

◆ 주관: △△ 문화원

- ① 유신 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
- ②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항하였다.
- ③ 시위 도중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하였다.
- ④ 직선제 개헌을 약속한 6·29 선언을 이끌어냈다.
- ⑤ 대통령이 하여하여 미국으로 망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①

'하계 답사 안내'라는 제목 아래 '우리 문화원에서는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킨 (가)의 의미를 조명하는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YH 무역 사건, 야당 총재의 국회 의원직 제명 등 일련의 사건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일어난 (가)의 유적지를 둘러보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답사 일정으로 1일차 '부산대 10·16 기념관 - 국제 시장 - 부산 양서 협동조합 터'가, 2일차 '경남대 교내 기념석 - 서항 공원 - 창동 사거리'가 제시되어 있고, 10·16 기념관과 '서항 공원 내 기념물'이 사진으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민주화 운동'은 유신 체제 말기인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 항쟁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9.10.16.~20).

부마 민주 항쟁은 유신 체제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는 10·26 사건 발생).

오답 해설>

②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의 5·18 민주화 운동이다(1980.5.18.~27).

③ 시위 도중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김주열(1943~1960)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것을 계기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은 1960년 4월의 4·19 혁명이다.

50 -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50.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 ① 남북 기본 합의를 교환하였다.
-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③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 ④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하였다.
-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정답> ③

'노벨 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최근의 남북 관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저는 지난 6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 우리의 일관되고 성의 있는 자세와 노르웨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햇볕 정책에 대한 지지는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김대중 제15대 대통령(1924~2009)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12월의 일이다(2000.12.10)(김대중 정부 시기, 1998.2~2003.2).

6·15 남북 공동 선언이 채택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0년 6월의 일이다(2000.6.13~15). 당시 김대중 대통령(1924~2009)은 2000년 6월 13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1942~2011)과 여러 차례 회담하였고, 그 결과 6월 15일에 남북 공동 선언[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5개 조항으로 구성).

오답 해설>

① 남북 기본 합의서가 교환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13).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②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7월의 일이다(1972.7.4). 남북한의 당국자들이 비밀리에 상호 방문한 끝에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④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합의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91년 12월의 일이다(1991.12.31).

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을 최초로 실현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남북 간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 이 상 -